

四二七九年四月二十二日第三種郵便物認可

소학생

2월치



아협 발행

75호



350612



비행기

임동은

나는 종각이다. 그러니까 아직 여러 분 앞에서 내가 어른입네 하고 빠져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 동무들은 나를 무척 따른다. 매일 같이 딱지치기를 하자 구슬치기를 하자 숨기네기를 하자 하며 찾아온다. 아 글썄 나를 뭐 자기들 동무로 아는 모양이다. 허진 나의 가장 즐거운 때란 이렇게 어린 동무들과 노는 때일 것이다.

요전 서부터 나는 비행기를 하나 만들기 시작하였다. 순전히 종이로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한 반

쯤 만들었을 때 어린 동무 하나가 찾아왔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보더니만 자기도 신이 나는지 풀을 발라준다. 종이를 잘라준다 하며 비행기 만드는 일을 도와 주었다. 그나 그 뿐인가 푸로페라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바퀴는 어떻게 생겨야 하고 국기는 어디다 그려야 하고. 이런 것을 나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나는 요런 꼬마가 어찌런! 이렇게 이런 것을 잘 아나 하고 정말 놀랐다. 그리고 요즘 애들은 무섭고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소학생

4283년 2월 1일 발행

2월치 75호

차례

동요·아침까지.....윤 석중(6)
 동화·잉 어.....임 서하(14)
 동화·도령과남북장이...최 상수(36)
 연재소설 | 채석장의소년.....염 상섭(4)
 | 모 오 구 리작 은돌(40)
 | 이름없는별들.....정 인택(26)

○재 공부.....윤 대영(24)
 ○백두산의 아침.....홍 종인(33)
 ○고대의 동물.....공 대준(20)
 ○생물수수께끼(봄꽃)...진 환(13)
 ○동시를 뽑고나서.....박 영중(39)

☆우리자치회(창천교)...송 영달(19)
 ☆방학일기(북성교)...최 대식(25)
 ☆우리동무동시집.....(38)

아협상타기장문·동요모집...(30)

수학놀이...(9) ☆정말일까...(12)
 소년상식...(16) ☆재 공부해답(39)

만화 | 영허리박사.....김 용환(33)
 | 어이촌났다.....김 상수(44)
 | 도술범사.....김 의환(49)
 깔깔박사.....(49)○상타기문제(48)
 소학생클럽...(50)○만들고나서(50)

☆그림 그리실 분☆

정 현웅·김 규택·조 병덕
 임 동은·김 의환·최 수섭
 (결장·정 현웅)



☆ 이달의 메모 ☆

- 2월 4일 ...입춘(立春).
- 2월 11일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나온 날. (서기 1847)
 "주간 소학생" 창간 기념일 (서기 1946)
- 2월 12일 ...이 울곡(李栗谷) 선생이 나선 날. (서기 1486)
- 2월 15일 ...이탈리의 과학자 가리레이·가리레오가 나온 날. (서기 1564)
- 2월 17일 ...음력 설날.
- 2월 19일 ...우수(雨水).
- 2월 22일 ...북아메리카의 최초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나온 날. (서기 1732)

채석장의 소년

염 상 섭 · 그림 김 규 력

병 위 문

1

“어제 그 자식 뭐라구 쟁얼 데던?”

이튿날 규상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이 영길(李永吉)을 만나니까 핀둥이를 주듯이 말을 건다. 영길이는 오늘도 학교에서 공을 차려는지, 스타킹에 축구화를 이것 보라는 듯이 신고 왔다.

“플루 얻어 터지구, 그까짓 자식이란 소리까지 들구서, 누군 가만 있겠나!”

그러나, 규상이가 채석장의 소년의 역성을 들어주는 말은 치에, 영길이는 한층 더 께대를 울리며,

“제잔 놈이 가만 안 있으면 어쩐다든? 그래 동무한테 주먹을 때두르며 욕질을 하는 그 잔 자식을 꺾 꺾 달래면서 데리구 가는, 네따위 자식은 뭐냐?”

하고 샷대질이라도 하려는 기세로, 한 걸음 달려든다. 영길이는, 어제 분하던 품이, 곧 그 자리에서 달겨들고 싶은 것을,

머리가 아파 하는데 쿨어 박았다가 어찌편저 겁도 나고, 저의 어머니가 있으니 꿈쩍 참고 말았지마는, 그 애를 달래며 데리고 가던 규상이가 더 밍고, 썸도 나던 께이었는데, 그래도 그 애 께을 들어주는 말을 들으니, 더욱 불끈하는 것이었다.

“남 아무려거나!”

규상이도 얼굴이 발개지며 코웃음을 치다가,

“넌, 무엇 잘났다구, 남을 잘 볼줄만 아니?”

하고 쏘아주었다. 다른 때 같으면, “넌 왜 성미가 그 모양이냐?” 어찌고, 좋은 낫으로 달랬겠지마는, 영길이가 찻째 짜우려는 사람처럼 덤비니, 규상이도 팩트라져 버린 것이다.

“무어 이 자식! 그래두 내가 잘못했다 말야? 너두 내 발길밧춤 보란?”

영길이가 축구화 신은 발길로 지를 듯이 덤비는 기세에, 이때껏 무심코 보던 아이들도 싸움인가 보다고 우우들 몰려 들었다.

“왜 그러냐? 왜 그래?”

어제, 채석장에서 공을 같이

차던 박 봉수(朴鳳洙)도 뛰어왔다.

“이 자식이. 그래두 제가 잘했다니 말이지.”

영길이는, 봉수가 제 편이라는 생각으로 하소연을 하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두 손을 허리에 올려 꼬고 다시 버티어 보인다. 규상이가 자기보다 아랫반이지마는, 동갑세오, 또 제 부하처럼 단뎡히 끌며 다니는 봉수와 단뎡이기 때문에, 자연 어울려 놀기는 한다. 그러나, 언제나 자기가 상급생이거니, 소년 축구단의 뿔뿔이요, 기운개나 쓰는고로 같은 육학년생들도 제 앞에서는 꿈쩍들을 못하거니 하는 가기로, 제 심사에 조금만 틀리면 친하거나 달거나 부루때고 레지르고 하는 버릇이다. 하지마는, 규상이는 한반 아래일망정 찻째로 반장이다. 자기 집보다도 더 잘 사는 집 아이다. 이런 점으로도 사귀어 놀지마는, 또 이러한 점에 기가 눌리는지, 전부터 규상이에게는 달겨들면서도 감히 손찌검을 하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하듯이 마구 굴지는 못하

원본페이지 누락

P.5~6

는지 모르겠다?”

규상이는 운동장 끝, 포푸라 그늘에 서서, 멀리 건너다 보이는 자기 집 동네를 바라 보다가, 혹시 그 애가 그 빌미로 알아 누웠다면, 가엾을 뿐만 아니라, 청원을 들을까 보아 겹도 나는 것이었다.

“참 그러지 않아두, 아까 아침에 채석장을 지내오며 보니까, 그 연 눈에 안피더라.” 봉수는, 규상이처럼 그렇게 다짐하게 염려까지 되어서 눈여겨 본 것은 아니었으나, 어제 그 편식을 하던 자라를 지나치며 무심코 둘러다 보자니까, 다른데서 들은 벌써 일을 하는데, 그 모자의 자리는 깨뜨린 조약돌 데미만 쓸쓸히 쌓여 있었던 것이다.

“응, 그래? ...어째, 그럴 것 같더라.”

규상이는 정말 그 동리로 알아 누웠다면 걱정이다는 생각에 얼굴빛이 흐려졌다.

상학 종이 때르를 울리는 소리에 두 소년은 달음질을 쳐 가며.

“너, 있다 갈제, 그 애가 나왔나 자세 봐라. 내일 아킬 두.”

하고 규상이가 봉수에게 열렸다.

“응!”

그러지 않아도 봉수는, 규상이가 그 애를 그렇게까지 칭찬하는 말에, 호기심도 생기고 가엾은 생각도 나서, 그 아이를 다시 한번 가 보려는 생각이었

다.

2

“어제두 그 어머니만 나와서 일하더라. 참 정말 그 애 앓는게야.”

그저께, 규상이의 말대로 학교를 관해 갈제, 채석장을 지나며 보니까, 그 애는 없고, 어머니만 혼자 일을 하더라더라, 어제두 그 어머니만 역시 혼자 있더라는, 박 봉수의 이를째의 보고다.

“좀 물어 보지 않구.”

“그랬다가 떠나 만나구, 약값 물어 내라구 야단을 치면 어쩌니?”

“하 하 하...”

규상이는 웃고 말았다. 아닌 게 아니라 가만 내버려 두었으면 그만일 것을, 서둘러 알은체를 했다가, 야단이나 만나고 약값이라도 물라면 큰 일이라고, 규상이기도 겁이 좀 났다. 그러나 저의 집이 바루우리 집 근처라는데, 어딘지 알았으면 한번 위문을 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떠올

랐다. 그 어머니도 상냥하고 좋은 어머니이었지마는, 그 아이의 다바치고 짹짹 의양과 말솜씨가, 규상이에까지는 언제나 잊혀지지를 알아서, 아무래도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더구나 저희들 때문에 앓는다면, 그런 눈치를 채고도 격장에 있어서 모른척하는 것은, 사람의 인자도 아니요, 비겁한 것 같아서 그래 있으면 안될 것 같다.

“봉수야. 앓다 우리 그 어머니한테 가 보자.”

규상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론을 하였다.

“글쎄...”

봉수는 규상이가 나선다면, 때를 만난다기로 든든도 하지마는, 막달 수도 없었다.

“너, 꼭 그 애가 마음에 드는 게로구나?”

“그 애두 가엾지만, 그 어머니두 좀 좋은 이 데, 어쨌든 우리편에 벌이두 못하구 알아 누웠는걸 알구두 어떻게 모른척 하구 있겠니! 약값 물라면 우리 노나 물렸구나.”

또 다시 나왔습니다!

☆아침 그림 얘기책☆

홍 부 와 놀 부	김	응	환	그림	· 값	120원
손 오 공	김	응	환	그림	· 값	120원
보 물 섬	김	응	환	그림	· 값	120원
피 티 이 팬	김	의	환	그림	· 값	120원
어 린 예 술 가	김	의	환	그림	· 값	120원
로빈손·크루소	정	현	웅	그림	· 값	120원

아침발행 * 을유문화사·문 장 각 발매

영길이가 놔두려 다 물레두 좋구.”

영길이가와는 그제께 그 말다툼이 있는 후로는, 이때껏 말도 아니하는 터이지마는, 언제나 백원짜리를 풀 풀 내놓고 군것질만 하는 영길이다. 제가 다쳐 주었으니, 돈 몇 백원 내서, 가엾은 아이 구제 좀 하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애. 영길이두 끝구 가자.”

“글쎄-, 가려 할까?”

“그 자식, 입찬 소리는 해두, 겁을 벌벌 벌거라. 하지만 집에 갈아 가는 길이니 모른척 하구 끝구 가자구나.”

규상이는 영길이가 따위와는 다지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 저만 편안히 내버려두고 싶지 않은 것이다. 때를 만나더라도

같이 만나서, “그깐 자식”에게 혼이 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었다. 무슨 안갯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해 놓고도 남을 깔볼줄만 알고 버티는 그 버릇이 못마땅해서다.

여름 방학 뒤에 개학한지 며칠이 안된 때라, 요새는 오전만 공부를 하고 가는 아이들의 한 떼 속에는 규상이고 끼어 있었다. 봉주는 이 김에 규상이고 영길이를 자화를 붙여 주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규상이의 말대로, 영길이를 끌고 아무쪼록 셋이 함께 짝을 지어 가려 하였다. 그러나 영길이는 처음에는 규상이가 어찌서 이쪽으로 따라오누? 하고 좋지 않은 내색이더니, 아마 저와 자화를 청하려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자, 한참 더 비씨는 수작으로, 멀적암치 떨어져서 작난군이 패를 끌고, 떠버리며 앞장을 서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채석장 앞을 오자, 규상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 영길!...”

하고 불렀다.

“뭐야?...”

하마트면 “이 자식!” 소리가 입에서 나올뻔한 것을 참고, 영길이는 돌려다보며 선다.

“너군 다시는 말두 안하려 했지만, 저번 그 애가 앓아 죽게 뻤단다. 그래서 지금 그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두 하구, 집을 배워 가지구 위문을 가려는데, 너두 가자.”

규상이는, 그 아이가 앓아 죽게 되었다고, 부러 서두르면서, 딱 얼르는 소리를 하였다.

“돌 깨뜨리는 그깐 녀석 죽거나 살거나 내 아랑곳 있다던? 너두 할 일이 없나 보구나? 어서 가보렴.”

영길이는 냉연히 버린다.

“아랑곳 없다니? 우리 때문 아니냐? 네가 절른 콩 때문이 아니냐?”

“뭐 어찌? 저 들 때 문, 저 해(日光) 때 문야, 무어 어찌고 어찌?”

하고 영길이는 허연 돌산을 가르킨다.



“너 어찌 그리 비겁하나? 그래 안됐다, 가엾다는 말은 못 해두, 그렇게 말을 해야 좋겠니?”

“이 자식, 누가 비겁하다는 거야? 너같은 동무두 모르구, 동무가 육을 먹어두 좋아 하구, 거리의 작쟁이나 좃어 가지구 동무라구 노는 놀하군 이야기가 안돼! 우리는 일 없어!”

영길이는 절도 나기는 냈다. 겁이 나느니 만큼 아랑곳을 아너 하려고 콩무니를 때는 것이 지마는, 그 사단 때문에 싸움까지 하고 난 끝이니, 내친 걸음에 한참 더 뻘뻘터리는 것이었다.

“응. 잘은 주절댄다라는 일제 그 애 어머니 아버지가 약값 내고, 내 자식 살려 놓라구, 너의 집에 당장 간다더라.”

규상이가 한바탕 썰러 주고, 봉수더러 가져고 끌러니까,

“봉수야, 넌 뭘하러 가는 거야?”

하고 위협하듯이 눈을 흘긴다. “우리는 일 없어!”라고 한, 그 우리란 봉수까지 끌고 들어간 말인데, 봉수가 규상의 편으로 붙는 눈치를 보니, 영길이는 자기만 의투로 따들려 세는 것 같아서 서운한 생각도 들거니와, 심사가 와락 나는 것이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봉수는 들의 사화를 붙이기는 고사하고, 어느 편으로 붙어야 좋

을지 난처하다. 규상이 편을 들고, 규상을 따라가면 나중에 영길에게 들볶일 일이 걱정이다. 그 주먹이 무섭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영길이 말이 틀리고, 규상의 하는 일이 옳은 데야, 규상을 배척할 수도 없다.

“그럼 넌 먼지가 있거라.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구 갈게.”

봉수는 사정을 들어다가 알려 주마는 듯이, 영길이를 좋게 달래며, 규상을 따라섰다.

“흥, 넌 약 가방을 든 조수(助手)냐? 돈 가방을 든, 자선심 많으신 부잣대 도련님의 병정어더냐? 어디 누구 보자!”

영길이는 이렇게 놀리고 위협을 하면서 큰길로 떨어져 가 버렸다.

두 아이는 채석장으로 들어가며 뜨거운 별이 쨍쨍 우리는 벌판의, 한 중력을 멀리서부터 눈으로 찾아보니, 눈대중을 친 그 자리에, 그 아낙네가 앉아 있다. 오늘도 쓸쓸히 혼자서 장도리질 하고 있다.

규상아는 어쩐지 반가운 생각이 들며 발찌가 재어졌다. 이 아낙네를 처음 볼 때부터, 그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와 인자스러운 눈과 낮빛이 많이 보던 사람같이 반갑고, 얼따끔 존경하는 마음도 느꼈던 터이지마는, 그동안 이 아낙네가 간혹 머리에 떠오르면, 모

수학놀이

1

수남 “이번에는 1 2 3 4 5 6 7 8 9 (8은 없애고) 가운데서 어떤 수든지 고르십시오. 그러면 영혜님이 골른 수만 가지고 답을 꾸며 볼터이니.”

영혜 “그건 더 재미 있는데요. 그러면 7을 골랐습니다.”

수남 “어떻게 되나 잘 보아두십시오.”

$$\begin{array}{r} 12345679 \\ \times \quad \quad \quad 63 \\ \hline 37037037 \\ + 74074074 \\ \hline 77777777 \end{array}$$

수남 “어떻게. 가르려 7이 놓이였지요?”

영혜 “어쩌면! 그럼 5!”

수남 “알았습니다.”

$$\begin{array}{r} 12345679 \\ \times \quad \quad \quad 45 \\ \hline 61728395 \\ 49382716 \\ \hline 55555555 \end{array}$$

2

이번에는 이 1 2 3 4 5 6 7 8 9라는 수에 8을 곱하고 다시 거기다가 9를 보태봅니다. 그렇게 한즉 다음과 같이 먼지 수가 겨우로 되어 나옵니다.

$$123456789 \times 8 + 9 = 987654321$$



“머리가 여
전히 흔들
린대요? 의
사가 뭐래
요?”

“그야 감기
니까 머릿
골이 쭈서
졌지 마는,
그 날 너머
진 땀두 있
는거야.”

완식이어머
니는, 말은 이
렇게 하면서
도, 잠깐 찌푸
렸던 눈살이
피어지는 것
을 보니, 그
날 넘어진 땀

습은 그렇지도 않지만, 종용한
말소리라든지, 조그마한 몸집
이며, 아무리 급한 지경이라도
저누르지 않고 차근차근히 몸
을 쓰는 거동이, 돌아왔어머
니 갈다는 생각이, 어느덧 머
릿속에 박여져서, 데를 만나거
나 하리라는 겁은 사라지고 도
터어 반가운 생각이 드는 것
이다.

“안녕하세요? 저 아사겠쬬?”

규상이는 모자를 훌쩍 벗으
며 웃어 보였다.

“응, 또 놀러 왔어?”

완식이 어머니는, 그리 반가
울 것까지는 없으나, 저번에는
완식을 데려다 준 아이요,
이렇게 지날걸이라도 일사를 하
는 것이 기특하다고 생각하였

다. 완식의 말을 들으면, 그
렇게 크낙한 집의 부잣집 아이
라면서, 자기네 같은 사람을,
덤보지 않는 그 심포가 무뎠하
다고도 좋은 낫으로 대해 주는
것이였다.

“그 애 어디가 아요? 괜찮
아요?”

“응, 그 날부터 몸이 끓구,
벌써 사흘째 몸져 누웠는
데...”

완식이 어머니는 눈살이 저
절로 찌푸려졌다. 두 소년은 자
기들을 청원하는 기색이 없는
데에, 우선 안심이 되었으나
그 눈살이, 아들의 병적정으로
찌푸려졌는지, 자기들을 나무
라는 뜻인지 어쨌든 송구스러
웠다.

을 조금도 이 아이들에게 하려
는 기색은 아닌 것 같다.

“그래 의사가, 공에 맞고 너
머져서 그렇다지는 않아요?”

규상이는 어디까지든지 분명
한 대답이 듣고 싶었다. 단순
한 감기인지, 그때 쓸어져서 뇌
진탕(腦震蕩)을 일으킨 것이 될
인인지 마치 재판소의 검사(檢
事)처럼 분명히 알고 싶었다.
그야 감기거나 뇌진탕이거나,
그 아이가 마음에 들고 동정이
가는바에는 알아 누워서,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이렇게 힘든
일이나마 못하게된 것이, 가엾
기는 일반이지마는, 만일 뇌진
탕 때문이라면, 규상이는 할
청 더 가슴이 쓰라리고 그 책
이 저의들에게 있거니 하는 생

각이었기 때문이다. 한 시라도 바빠 그 책임감—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었다.

그러나 완식이 어머니는, 이 아아가 자꾸 약사를 보였느냐는 말에 대답하기도 어렵고, 어이가 없었다.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의사를 불러다가 보일 형편이 아닌, 자기 처지를 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대답이 막히고 말았다.

“응, 첩 약을, 두어 첩 먹었으니까, 인제 낫겠지. 어서들 가서 놀지.”

어서들 가서 놀라는 말에, 규상이는 눈물이 스며 오르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아들은, 뭘 탓, 무슨 탓이든지 간에, 지금 이 터위에 방 속에서 공공 앓고 누웠을 터인데, 너의 때문에 우리 자식 죽게 되었다는 칭원 한마디 없이 우리 너라는 어서 가서 놀란다! 하는 생각을 하면, 이 아낙네가 어디까지 어진지 알 수가 없을만큼 고마워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이었다.

“아니, 아즈머니! 우리가 놀러온 것이 아니라, 그 애가 그 후부터는 보이지 않더라기에, 앓는가 싶어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맥이 어디예요?”

규상이의 이 말에, 완식이 어머니는 눈이 동그해졌다. 너무나 고마워서, 그 동그해진 두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지날 곁에 말을 붙이는 줄로만 알았고, 또 그만만 하더라도 설모

숨들이 제법이고나 생각하였던 완식이 모친은, 일부러 아들의 병 위문을 왔다는 말에 감격하였다. 그러나 자기 집을 가르쳐 줄 수가 없었다. 터구나 그렇게 잘산다는 이 아이가 자기 집을 찾아 오다니 말이 되는가 싶어서 덤덤히 앉았다. 그것은 황송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에게라도 부질없이 자기의 비참한 살림살이를 보이기가 싫고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 완식이만 하더라도, 어떠한 잘사는 집 아이들과는 동무도 아니 되겠지마는, 잘사는 집 아이들과 놀리기도 싫었다. 남에게 지지는 않으려는 그 애 성격에, 잘사는 아이가 부러워서 불평만 늘어가고 성미가 나빠가거나, 눈만 높아져서, 나중에는 사람이 못 되어질가 보아서, 이 아이들의 고맙고 기특한 마음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정을 막아내고 물리치고 싶었다.

“우리 집?... 우리 집까지 올거 없어. 인제 일어나서 일 하러 나올거니 염려, 말구 어서 가서 놀라구.”

완식이 어머니는 들 깨는 따치를 다시 듣다.

“아내요. 우리 맘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 집 동넨데, 좀가 보면 어때요.”

“응, 한 동네라지? 하지만 우리 집은 학생들이 울데가 못 돼.”

완식이 어머니는 웃음의 소

(37페이지에서 계속)

한즉, 도둑은 마음이 조급하여 “빨리 또 잡아나 쳐 보아.” 하고 꼬레꼬레 소리쳤다.

주막에 숨어 있던 두 사람은 죽을 법하였다. 이 주막을 나온 두 사람은 곧 말을 달려 강가에 이르렀다. 이럴 때 점장이가 집을 쳐 보고는,

“빨리 달려가야 하겠읍니다.

지금 막 강가에 다달았읍니다.” 하니 도둑은 또 말을 달려 강가에 이르르게 되었다. 강가에서 두 사람은 뱃사공을 불러,

“이 강을 좀 견드게 해주세요.” 하고 애원을 하였으나, 사공도 역시 도둑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기 때문에 못하겠노라고 거절을 하였다. 그들은 할수 없이 또 전과 같이 다시 애원을 하며 금덩거리를 하나 내어주고 강을 견드게 해달라고 하니 그제야 뱃사공은 이 말에 못이기는 체하고는 배를 대어 강을 견게주고 배를 끌이 강가에 올려놓고 있으려니가, 도둑이 저편 강가에서 뱃사공을 불렀다. 이 소리에 그들의 형제도 뱃사공도 모두 숨고 있으려니가 큰 소리로,

“사공아 배 대어라.”

하고 수차 사공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으므로 도둑은 고향을 질러 “이놈의 말이 강을 못견디느냐.” 하고 채죽을 치니, 말은 경충 뛰어 건드다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리하여 그 도둑은 죽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길이길이 잘 살았다고 한다.

터처럼 대꾸를 하며, 여전히
마치 든 손을 늘리고 있다.

“절차실에서 라디오 상화를
팝틀여 다리를 건너 서면 설
자거리가 되죠? 거기서 좀
더 마주 올라가면 렉이 되
죠?”

규상이는 저번에 완식이가 자
기 집 앞에서 헤어져서 올라가
던 방향을 짐작하고 묻는 것이
다. 그러나 완식이 어머니는,
잡자코 손만 늘린다.

“거기서 어디쯤 돼요? 일부
러 여기까지 왔는데, 안 가
르쳐 주실게 뭐예요?”

규상이는 대답을 기다리고 싶
다가, 시비하 듯이 또 쾅다. 어
찌서 이 아나내가 자기 집을 아
니 가르쳐 주는지 알 수 없는
일이요, 답답한 노릇이다.

“별지만 가르쳐 주세요. 네!”

저편이 대답을 안하니, 더욱
이 아무래도 알고야만 떨어지
겠다는 일념에 또 조른다.

“우리 집은 빈짓수두 없구.”

완식이 어머니는, 설없는 말
처럼, 혼자 한탄하 듯이 옆에
배었다. 어린 아이가 조르기는
하고, 그렇다고 가르쳐 줄 수
도 없고... 완식이 어머니는 울
고 싶었다. 그러나, 빈짓수가
없다는 말에, 규상이는 귀가 번
쩍하였다. 일전에 그 애도 저의
집은 빈짓수가, 없다고 하던 말
이 생각난 것이다. 그 동네로
올라가면 크낙한 새 집들도 많
지마는, 그 맞은편 산에는 방공
굴도 많고, 그 방공굴에는 전
제민들이 우굴우굴한 것이다.

정말일까?

별에서 온 사람

미국 뉴우욕에서 들어온 소식
에 의하면, 제 2차 세계대전 때
아메리카의 중군 기자였던 루엣
차·루갓트 씨는 어떤 과학 잡지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다음과 같
이 말하였다 합니다.

“하늘을 달리는 원반(圓盤)”은
이것이 우리들의 상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실상, 다른 유성(遊
星)에서부터 내려온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만한 정보에 의하면 안

메리카 정부 당국에 수용했던 “하
늘을 달리는 원반”에는 거기에
승무원이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승무원들은 원반이 지구 주변
을 싸고 있는 대기권내(大氣圈
內)에 들어갔을 때 죽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기의 압력으로 해
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
증명 되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의 시체를 해부하여 연구중에 있
다고 합니다. 이 유성에서 온 사
람들의 키는 약 1m에 지나지 않
는 이상한 자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거기나 아년가? 하는 생각이
며 오르자, 규상이는 더 캐어
풀을 용기도 나지를 앓아서,
떨거니 섰으려니까, 옆에 이때
까지 입을 다물고 섰던 봉수가
귀에다 대고,

“아마 그 동네 방공굴인데
지.”

하고 축삭인다. 완식이 어머니
는 별짜 알아 들었는지, 봉수
를 힐끗 본다. 옆 가에는 웃음
을 머금어 보였으나, 그 눈은
방공굴이라는 말에 모욕이나느
겐 듯이 정반대로 돌려 보는 것
이었다. 규상이는 다 알아 차
렸다. 그러나 그대로 가는 수
도 없어서 또 한번,

“그 애 어른이 뭐딘가요!”

하고 말은 들리니까, 완식이 어
머니는 거기에는 대답하지 않
고, 어린아이의 열성에 감동이

되어, 뭉쳤던 마음이 풀렸는지
상긋 웃으면서,

“그래, 그렇게 꼭 가 보구싶
어?”

하고 귀여운 듯이 두 아어를 다
서 쳐다본다.

“네, 어서 일러 주세요.”

“아까 학생이 말하던, 그 길
로 올라 가느라던, 중력에 방
공굴이 셋이 있는데, 한가운
데 방공굴 앞에 참외 가게가
있지. 거기 가서 김 완식이
를 찾아 보라구.”

하며 완식이 어머니는 일러주
고 말았다.

“네, 고맙습니다!”

규상이는 모자를 벗고 구벽
하며, 참외 방공굴을 가르쳐 주
기가 부끄러워 하는 그 낮빛을
마주 보기가 며안적어서 평소
너를 쳐 돌아 나왔다. (계속)



봄 꽃

“사프란” “튜립” “수선화” “하야신스”들, 봄에 피는 꽃은 다 덩이뿌리에서 자라납니다.

이런 꽃들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찬란한 자울 날을 벗어나 피어나오는 이 꽃들은 우리와 마음을 명랑하게 하여 줍니다.

덩이뿌리라는 것은 식물의 영양분을 듬뿍 지니고 있는 통통하게 살진 덩이뿌리입니다.

길을 싣 거죽은 물을 딱고, 식물을 키울 때는 따뜻한 덩이뿌리에 붙은 실뿌리로 빨아 들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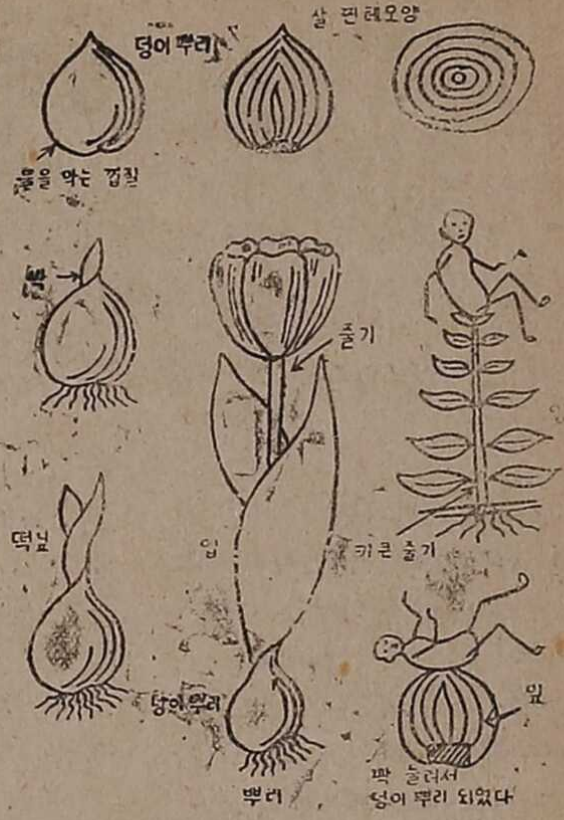
속에는 물기를 많이 품

은 데 모양들로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덩이뿌리 한 가운데에 꽃봉오리가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꽃이 이슬머는 덩이뿌리는 다시 영양분을 빨아 들어어 어둠해 것으로 간직해 둡니다.

덩이뿌리의 꽃을 따서 해쳐 보면, 세가지 조각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장난구러기 멩뎡보 풀잎 꼭지에 앉았게 줄기는 늘려 오글고 풀잎은 들들 말리고 뿌리에 뽕뽕 뭉쳤게 아빨사 덩이뿌리 되었네.



기라리된 책 나온다!

이성표 저음·정현웅 그림

신라의 별

잡지 어린이 나라에 연재되어 갈채를 받은 명작장편 모험소설이 드디어 책이 되어 나왔습니다. 김 유산장군의 용감 무쌍한 역사 소설입니다.

발매 중 250원

기플링 저음·작은돌 번안

모오구리의 모험

소학생에 연재되었던 전편에다가 새로 후편을 붙여서 모오구리 이야기는 모조리 들어간 책입니다. 씩씩하고 슬기로운 모오구리의 아기자기 한 모험은 후편에 많이 있습니다.

삼화는 김 의환 선생

이달 그믐께 발매
북성당 발행 ☆ 각서점 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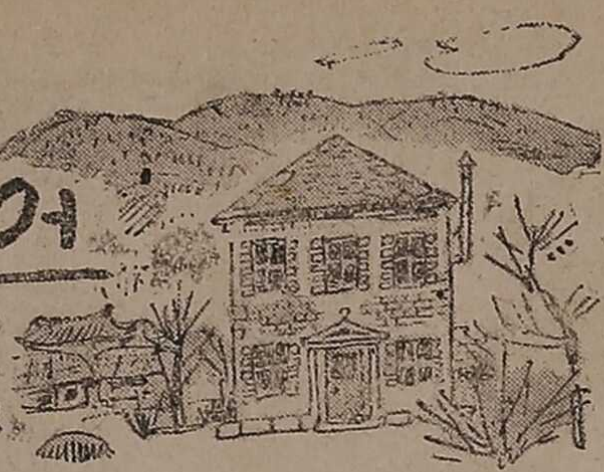
다음 달에는 나팔수선 이야기

동 회

영 어

임 서 허

김 의 환 그림



오늘도 아버지는 나바를 쫓아 다니다가 연못에 빠져 죽은 영수의 말씀을 하시다 기철이 보다 먼저 잠이 드셨습니다.

어느 때나 되었는데 히 히 소리를 내며 불던 바람도 소리가 없어지고 밝은 고요했습니다.

등잔불도 꺼진 어두운 방에서 기철이는 유리창으로 넓은 앞뜰을 내다 보았습니다.

초저녁까지 나리던 눈은 넓은 뜰을 은세계로 만들어 놓았고, 동실동실 뱀도는 듯한 구름 사이로는 쟁반 같은 달이 밤을 밝고 아름답게 했습니다.

기철이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수 둘레에 우뚝우뚝 서 있는 소나무가 암만 보아도 뻗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못은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한 작은 연못도 아니었습니다.

물은 푸르고 깊은 연못이었습니다.

어 연못에 기철이의 동무 영수가 호랑나비를 잡으려고 쫓아 다니다가 물 속에 빠져 죽은 것

입니다. 지난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영수는 기철이와 똑 같은 열 살이고 삼학년이었습니다.

영수와 기철이는 여름 방학이 되자 여러 동무들과 떼를 지어 산으로 들로 강으로 놀러 다닌 것이었습니다.

반 시간도 못해서 서울을 가게 되는 곳이면 가까이 강물이 흐르고 마을은 산 속 두메처럼 다닥다닥 몇 겹 있을 뿐입니다.

뒤로 산이 솟아 있고 앞으로 강물이 흐르고 여러 백년 된 나무가 있어 공기가 맑을 뿐 아니라 경치도 참 아름다운 곳이지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궁전 같은 이층 양옥이 이 마을에 하나 오래전부터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양옥 집을 마을 사람은 흔히 별장이라고도 하고 혹은 강기만에 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강기만이라는 사람의 별장인 것입니다.

강기만이네 여러 가족은 저는 듯한 여름 한동안 이 별장에서 지내고 가을 겨울 봄 더웁지 않은 동안은 별장을 비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기철이네는 그 별장을 지키는 별장적이었습니다.

기철이 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별장을 살피고, 풀나라처럼 아름다운 뜰을 비로 깨끗하게 들고, 둘레의 나무를 꺾어 가지나 앓나 돌아 다니며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밭을 갈아 주는 것입니다.

연못은 별장에서 온 길로 따지는 꽃밭과 숲 사이에 있습니다.

연못 둘레는 나무 잎과 풀로 가리워 물이 안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 날아 달아나는 호랑나비를 쫓아 가다 영수가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으니 얼마나 딱한 일이겠습니까.

그 때 뒤쫓아 가던 기철이와 그리고 만 동무들은 큰 소리도 못하고 무서운 생각에 서로 눈만 둥그래져서 잠시동안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윽고 기철이는 허부덕거리며 영수의 뒤를 따라 물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다행히 기철이는 수영을 잘 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후 기철이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부시시 떠 보니 물 속이 아니라 해가 쨍쨍 내려 쬐이는 잔디 위였습니다.

아직 기철이는 정신이 나지 않아 다시 눈을 스프르 감고 잠자는 듯 하다가 다시 눈을 뺏습니다.

어찌된 영물일지요.

사람이 웅성웅성거리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기철아—"

부르며, 배를 어루 만지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슬픈 울음소리였습니다. 남자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가냘픈 여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울음과 함께

"영수야— 영수야—"

하는 소리도 섞이어 들렸습니다.

기철이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나다 내가 아버지다. 기철아 정신을 채려."

기철이 옆에서 떠나지 않고 있던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영수는 어디 있우?"

기철이가 기운 없는 소리로 묻자,

"응 염려 마라. 영수는 영수는 저기 있다."

하고 아버지는 말을 일러무리는 것입니다.

어디선지 여전히 기철이의 귀에는

"영수야 영수야—"

부르는 가냘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철이가 아주 정신이 든 것은 해가 서쪽 산으로 기울어질 때입니다.

"아버지 영수는 죽었지—"

기철이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

라다 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겨우 고개를 끄덕거리며,

"불쌍한 영수다. 너도 하망드면..."

하고 말을 채 못했습니다.

영수는 기어이 다시 못오는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철이가 영수의 뒤를 따라 물 속으로 들어가자 곧 기철 아버지가 땀을 뺨뺨 흘리며 뛰어 왔습니다.

먼저 물 속에서 건져 낸 것은 기철이고 또 얼마 있다가 영수가 건져졌습니다.

불쌍한 영수였습니다. 해엄을 치지 못하는데다 그리 튼튼하지 못한 영수는 물에서 건져 내자마자 고만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개 넘어에 사는 영



수 어머니가 팔레를 하다 말고 뛰어들어 온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영수 어머니는 영수의 차터 찬 물에 머리를 때고 그냥 소리를 때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울 뿐 아니라, 자꾸만 영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울었습니다.

사실 영수 어머니는 그보다 더 큰 슬픈 일이 없었습니다. 영수의 죽음은 영수 어머니의 죽음과 같았습니다.

영수 아버지는 영수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 영수와 어머니 이렇게 두 식구였습니다.

영수는 가난하였지만, 공부도 잘하고 마음 착한 동무였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단 하나의 자랑이었고, 또한 영수도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여간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철이와 똑 같았습니다. 기철이도 아버지와 단 두 식구, 기철이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들도 없는 자랑이었습니다. 기철이 어머니도 기철이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기철이와 영수는 선생님이 칭찬해주실만큼 사이가 좋은 들도 없는 동무였습니다.

싸움 좋아 하는 동무들은 기철이와 영수를 쌍둥이라고까지 해서 놀렸습니다. 그래도 영수와 기철이는 조금도 마음이 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영수를 “대가리 장구”나 기철이를 “누갈 딱부리”라 해도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번 영수가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자, 기철이와 영수는 들어 떨벼 특특이 이긴 일이 있었습니다.

영수가 연못에 빠진 날도 기철이는 아침부터 영수와 함께 들관으로 헤매었습니다.

호랑나비를 잡아 호랑나비의 그림을 그리자고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영수를 잃어버린 기철이는 백이 없어지고 반가운 것을 모르는 외로운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동무들의 얼굴이 모두 영수처럼 보일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고, 꿈마다 영수가 모여줄 것입니다.

어느 때는 꿈결에 허정허정 연못가로 걸어가는 것을 아찔저한데 들킨 일도 있었습니다.

아작도 기철이의 생각엔 영수가 연못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

졌습니다.

가끔 기철이는 혼자 연못가에 앉아 물속을 들여다 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아버지는 기철이의 손을 잡고 서술가는 자동차를 타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아버지는 기철이와 빈잡한 자리를 해매이다 만화책과 맛있는 과자를 사 주고 했습니다.

그래도 기철이는 연못과 영수를 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연못 속에는 꽃과 날짐승과 선녀들이 사는 나라며, 금처럼 번쩍이는 큰 집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물 속에도 아름다운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속에서 영수는 아직 살고 있을 것이라.

기철이는 연못가에서 눈물을 흘린 일도 있었습니다. 기철이의 눈물을 보자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시었습니다.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기철이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더욱 알라까운 것은 영수의 어머니를 만날 때,

“기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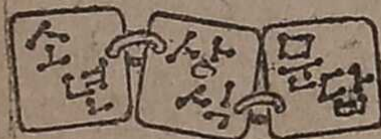
“네.”

대답하면 눈물을 글성거리다

없는 노릇입니다.

(문) “100 퍼어센트”라 함은 무엇인가?

(답) 1 퍼어센트는 $\frac{1}{100}$ 이니까 100퍼어센트는 $\frac{100}{100}$ 입니다. 즉 만점이란 뜻도 되는데, “이 소설은 100퍼어센트 재미 있다.” 하면, 아주 재미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 음식은 50퍼어센트 밖에



(문) 지구가 하루에 한번 도는 것이라면,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머물러 있으면 단 하루에 몇주 일주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사실은 안 그런 것은 무슨

까닭인가?

(답) 지구 위 공간에 있는 것은 지구의 인력 때문에 항상 끌려 있으므로, 지구가 도는 데로 따라서 돌기 때문입니다. 허기야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때까지 비행기를 높이 띄우면 될 것이지만 달까지도 지구의 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팔 수

돌아서는 영수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수를 잃어버린지 한 달이
되던 뒤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
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연못가에 선녀가 나
타난다지.”

흰 옷을 입은 아름다운 선녀
가 밤이면 나타났다 연기 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자, 기철이는 하
룻밤 뜰앞에서 연못가를 지키
고 있었습니다.

자정이나 되었을까, 연못가
에는 흰 옷을 입은 자람이 보
였습니다. 그는 연못가를 으
렛동안 서성거리며 기도를 올
리듯 하더니 숲속으로 빠지는
갯길로 사라졌습니다.

허나 그것은 선녀가 아니라
영수의 어머니였습니다.

기철이는 영수의 어머니라는
것을 똑똑히 살피고야 말았습
니다.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
음 날도 영수의 어머니는 아름
다운 흰 옷을 입고 호젓히 연
못을 찾아 왔다 돌아갔습니다.

기철이의 눈에는 무슨 아름
다운 그림이나 혹은 꿈나라에

맛이 없군! 한다면, 50점 밖에는
안 되는 음식이란 뜻입니다. 100
점을 만점으로 하였을 때 최고 점
수를 100퍼센트라고 하는 것입
니다. 글씨로 쓸 때에는 100%라
고 씁니다.

(문) 취주악이란 어떠한 음
악인가?

(답) 취주악(吹奏樂)은, '목

나오는 선녀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기철이의 말을 들
고 기도하 듯이 고개를 푹 숙였
습니다.

☆

하늘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머칠 동안 내려 쬐인 눈은 햇
볕에 반짝반짝, 보이는 것이 모
두 눈 채겨였습니다.

소나무는 매아닌 봄이나 찾아
온 듯 그당 꽃 같았습니다.

바람에 쓸려 잔잔한 파도처
럼 눈의 층계를 이루었지만 사
람의 발자국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었다던 연못도 눈으로 덮여
멸판 같았습니다.

먼저 이상스럽게 생각한 것
은 아버지였지만 다음에 놀란
것은 기철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이 연
못까지 뚜렷히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굵은 남
자의 발자국이 아니라 작은 여
자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지난 밤에 누가 연못가엔
왔었구나.”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
리자 기철이는 문득 영수 어머
니 생각이 났습니다.

관(木管) 금속관(金屬管) 타악
기(打樂器)의 새 갈매 악기를
로 된 연주인데,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가 많으므로 “취
주악”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주
단체를 취주악단이라고도 하고,
그 악기가 금속으로 만든 것이 중
심이 될 때 “브라스밴드”라고
도 하고, 또 주로 군대에서 이것

영수 어머니가 그동안 기철
에 갔었다는 말을 들은 기철이
는 그길로 고개 넘어 영수 어머
니를 찾아 갔습니다.

기철이가 찾아 갔을 때는 영
수 어머니는 그 날 이른 아침,
이 마을을 마지막으로 떠나고
야 만 것이었습니다.

기철이는 쓸쓸한 가슴을 어
루닫지며 집으로 들어가지 않
고, 바로 연못가로 눈을 밝으
며 걸어갔습니다.

눈으로 덮인 연못을 마냥 타
라다 보던 기철이는 영수의 어
머니의 발자국에 틀림이 없
을 그 발자국 끝나는 자리에
서 몇 장의 종이조각을 발견했
습니다.

기철이는 두군거리며 가슴으
로 그 종이조각을 펴 보니 그
것은 영수가 그린 도화였습니
다.

꽃이며 새며 산들이 그려 있
는 도화였습니다.

영수는 학교에서는 제일 그
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었습니
다.

그 몇 장의 도화지 속에는 한
장의 사진, 영수 어머니의 사진
이 있었습니다. 아따 요즈음 박

을 쓰기 때문에 군악대라고도 합
니다. 취주악에는, 바울린이나
켈로 같은 현악기(絃樂器)가 불
어 있지 않아서 모한 맛은 적으나
그대신 웅장하고 명쾌한 맛이 있
습니다. 이 특색으로 실내의 연
주보다는 뜰이나 거리에서 연주
하는 데 적합합니다.

은 쥘지도. 제 사진이었습니
다.

사진 뒤에는 한글로,

“영수야. 어디니는 먼 곳으
로 떠난다. 허지만 언제나 너
의 가까이 있다. 영수야, 너
는 죽지 않았다. 너는 지금
쯤 어머니가 놀랄만한 큰 꿈
을 꾸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다.”

기철이는 한참 사진과 그림
을 보았습니다. 영수 어머니의
마지막 말,

“영수야,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지 영수야, 정직하
고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해
.”

이 말에는 기철이도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그 말은 기철이에게도 하는
말 같았습니다.

기철이는 사진과 그림을 소
중히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겨울인데도 봄 날처럼 따뜻하
더니 눈이 녹고, 얼었던 얼음
이 녹는가 했더니 밤 사이에 갑
자기 추워져 얼핏도 팽이나 얼
음 지치기에 알맞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스케트나 팽이 돌리
는 어린이들은 모두 가까운 강
으로 몰려 갔습니다.

영수 어머니가 놓고 간 그림
과 사진도, 물에 젖어 녹는 물
속에 잠겨 있더니 얼음처럼 팽
팽 얼었습니다.

기철이는 팽 팽 언 영수 어머
니의 사진을 아직도 푹푹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음 속에 보이는 사진은 거
울 속에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얼음도 수정 같이 맑아, 얼
핏 속이 모두 보이는 것이 이념
니까. 물 속의 풀이며 바위가
손에 잡힐 듯이 보였습니다.

“아유—.”

얼음 속의 얼핏을 오래 오래
들여다 보고 서 있던 기철이는
어떻게 부르짖을번 했습니다.

기철이는 맑은 얼핏 속에서
큰 붕어를 발견했습니다.

“잉어—”

분명히 잉어였습니다.

이 얼핏에는 작은 물고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큰 잉어를 본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철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로, 아버지에게 얼핏에서 잉어
를 보았다는 것을 자랑이나 하
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무엇을 생
각하시는지 눈을 감으시더니, 1
잠시 후에 눈을 뜨고,

“신중한 일이다. 잉어는 용
이 되는 고기란다. 몇 천년
좋은 생각을 하고 힘을 쓰면
용이 되는 고기야. 나도 용
을 본 일은 없지만 용이란 사
람이 따를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하늘에서 살고 있다.”

하시더니,

“영수가 용이 되려나 보구나.”

즐거운 한숨까지 내 쉰 것입니다.

이날 밤, 아버지는 역시 기철이에게 용이라는 사람의 힘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짐승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영수가 용이 되는구나.”

기철이도 이렇게 생각하니, 저급까지 외로웠던 생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 밤 꿈 속에서 영수를 만나보고 영수와 함께 따라가니 영수는 열꽃 속으로 들어가 잉어가 되어 거운치게 노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기철이가 열꽃 가까에서 노는데, 고기잡는 늪은 어부가 썰매와 정과 틈을 때고 지나가타 발을 멈추었습니다.

어부는 기철이와 열꽃을 훑찰아 보더니,

“얘야, 저 열꽃에 고기 있니?”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부가 열꽃의 잉어를 빨가봐 집을 걸어 먹었던 기철이는 천연스럽게 고개를 흔들고,

“여기는 고기 없어요. 고기는 저 강에 있어요.”

하자, 어부는 담뱃대를 물고 어슬렁 어슬렁 강으로 걸어갔습니다. (끝)

★상타기 보내실 때★

● 주의하실 것

이제 부터는 상타기 문제에는 반드시 “독자증”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엽서에 붙여 보내면 벌금을 물게 되니 주의하십시오.



부지런히 일하고, 군경 아저씨도 위문

서울 창천 공립 국민 학교
6학년 3종 영달

우리학교 교의 자치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린이자치회에서는 교의자치회와 교내 자치회가 있습니다. 교내 자치회의 광경은 작년에 수송 국민 학교에서 천여분 선생님을 보여 드리고 지난 4283년 1월 28일에는 덕수 국민 학교 강당에서 교의 자치회 하는 광경을 서대문구 여러학교 선생님께 보여 드렸습니다. 이 어린이 교의 자치회의 목적은 우리 창천학교 이전 여명 어린이들이 동네에서도 썩썩하고 정답게 지내자는 것입니다. 조직은 각등에서 통장 수명과 등부장 한명씩과 회장 한명 부회장 두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의는 처음에 각 등내에서 통장이 각 등원들의 생활상태를 등부장에게 보고하면 등부장은 등부장회 즉 간부회에서 보고와 반성을 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또다시 앞으로 한 달의 생활목표를 결정하면 등부장은 등장회를 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의논하여 각 회원들의 실천에 옮깁니다.

그러면 덕수 학교에서 한 교

의자치회의 광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자의 개회선언이 있자, 우리는 일제히 엄숙하고 경건한 국기경례를 한 후 애국가를 우렁차게 불렀습니다. 그 후 회장의 개회사가 있을 후 우리 회원들의 요즘 생활상태 또는 실행한 일의 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노고산동에서는 부모님의 힘을 도와 들을 길고 또 공장에서 양말을 받아 그것으로 군경아저씨들을 위문하려고 모으는 중이라던가, 신촌동 회원은 한 곳에 모여 공부하고 절친운동에 대한 포스터를 그려 전신주에 붙였다던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끝난 후 우리가 실천할 생활목표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매일 아침 자기 집 근처를 쓸자.
 2. 군경아저씨를 위문하자.
 3. 오후 9시 이후로는 밖에 나가 놀지 말자.
 4. 전기를 절약하자.
- 따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학교 교가를 썩썩하게 부르고 폐회사로써 회의를 그쳤습니다.



고대의 동물

배재 중학 교사 공래훈



4. 배미리 짐승(爬虫類)시대

여러분은 “소학생” 70호에서 화석(化石)은 어떻게 생겨 나오는 것이며, 또 배미리 짐승시대에 살던 천둥도마뱀은 어떠한 모양으로 그 살림살이를 하였는지를 알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무서운 천둥도마뱀이나 뿔대도마뱀들이 살던 배미리 짐승시대의 세계를 한번 구경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무서

무시한 세계를 구경하기 위해서 지나간 옛 날로 뒷 걸음걸 하는 상상(想像)의 나그네 길을 떠나서 배미리 짐승시대의 하루를 지내봅시다.

지금 여러 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서 가령 1억 3천 5백만년 옛날로 돌아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때는 바로 배미리 짐승시대의 중기(中期)에 들어가서 있을 즈음입니다.

햇볕은 찬란하게 나고 열대지방과 같이 더운데 수풀은 울창하

게 우거졌으니 앞으로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의 배미리 짐승 따위의 한 가지 즉 악어나 뱀들이 무섭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 몸을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찾아 가야 하겠다고 생각 할 것입니다. 물론 사방에는 여러분의 몸을 피할 수 있는 집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할만한 곳은 아마 큰 나무 꼭대기나 되겠지요. 여러분은 큰 떡갈나무나 또는 느릅나무는 없나 하고 사방을 살피시겠지만 암만 찾아 보아도 그런 나무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

그림 1 대들보 도마뱀 (몸길이 25미터)

-아메리카 와이오밍주에서 화석으로 발견한 것-



나무는 대단히 많아도 떡갈나무나 느릅나무의 잎사귀 같이 넓은 잎이 붙은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큰 소나무나 찾아서 꼭대기까지 기어올라가 봅시다. 여러분은 그 꼭대기에서 무슨 일도 그 밑에서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살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 건너 못(池)에서는 거창한 동물들이 물 속에서 걷고 있는지, 떠서 있는지 하여간 이리 저리로 움직이고 있지요. 몸은 무척 긴데 머리는 매우 작은 놈이 가끔 머리를 물 위로 높이 쳐들고 사방을 둘러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 짐승은 여러분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늘실 늘실 연못 밖으로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짐승의 거창한 몸집을 더욱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보던 땅 위의 짐승보다도 무척더 큰데 그 등위로 올라가자면 큰 사다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몸 두께는 40톤 이상이나 되니까 이 짐승 한 마리를 실을려면, 2톤 반을 실는 화물차 등차면 17대 가량이나 필요할 것입니다. 그 짧은 나무기둥 같은 다리와 기나 긴 목과 꼬리를 보십시오. 마치 목과 꼬리를 잘라 버린 큰 코끼리에다가 뱀의 목

을 붙이고 긴 동이를 꼬리에 다라 놓는 것 같이도 보이고, 또 큰 뱀의 몸에 세 다리가 난 것 같기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꼬리는 그의 긴 목보다도 긴데 약 12미터나 되어서 만일 우리가 그 꼬리 가까이 갔다가 그 짐승이 자기 꼬리를 한 번 휘저을 때에는 몸도 떠도 남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짐승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꼬리를 채찍과 같이 마음대로 휘젓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그 꼬리 끝으로 일어 설 수만 있다면 그는 칩사리 소나무 꼭대기에 있는 여러분에게 까지 몸이 닿을 것입니다. 그의 몸길이는 실제로 25미터 이상이나 되니까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는 꼬리 끝으로 일어 설 재주는 없기 때문에 한 번 고개를 든다 하더라도 2층집 지붕 높이 밖에는 아니 됩니다.

이 거창한 짐승은 엄청이 도마뱀의 한 종류인데 대들보드마뱀(梁龍)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들보드마뱀도 천등도마뱀과 같이 그 몸집은 무척 커지만 그 머리의 작기로 보아서 분명히 어리석고 미련한 듯 한 데 그 대신 그는 착하고 순한 짐승입니다. 그 잇발은 적은 것이 아래턱의 앞 줄에만 있는데 그것도 소(牛)와 잇발과 같이 넓적한 것이 빗서 있기 때문에 육식(肉食)은 못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위 력에는 잇

발이 하나도 없습니다. 체통이 큰 그 짐승이 무엇을 먹는 꼴을 보십시오. 물에 뜬 풀이나 조개 같은 것을 입에다 넣은 다음 물을 함입 가득이 마시고는 결국 결국 하면서, 그 음식을 삼키는 꼴은 마치 뱀이 알(卵)을 훑쳐서 먹을 때 목을 잡아 느리는 꼴과 비슷합니다. 야! 저놈을 좀 봐라! 주먹만한 돌을 또 집어삼키는구나! 오! 그러니까 이 짐승도 닭의 모래주머니(砂囊)와 같은 것이 위(胃) 위에 있어서, 입에서 씹지 못한 음식을 그 모래주머니에서 씹게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 대들보드마뱀을 만약 꼭대기만 마당에 갈다 놓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그러나 그는 좀체 팔리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당 안에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대들보 같이 가만히만 서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도마뱀에다가 짐승의 머리를 붙인 듯 한 흉한 엄청이도마뱀의 한 종류가 나타납니다. 이 짐승은 오리주둥이도마뱀(鴨嘴龍)이라고 부르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오리의 한 종류가 아니고 도마뱀의 한 종류라는 것을 칩사리 알겠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즉 이 오리주둥이도마뱀은 사기질로 된 잇발이 나 있고, 몸의 겉껍질은 털이 나지 않고 악어와 같은 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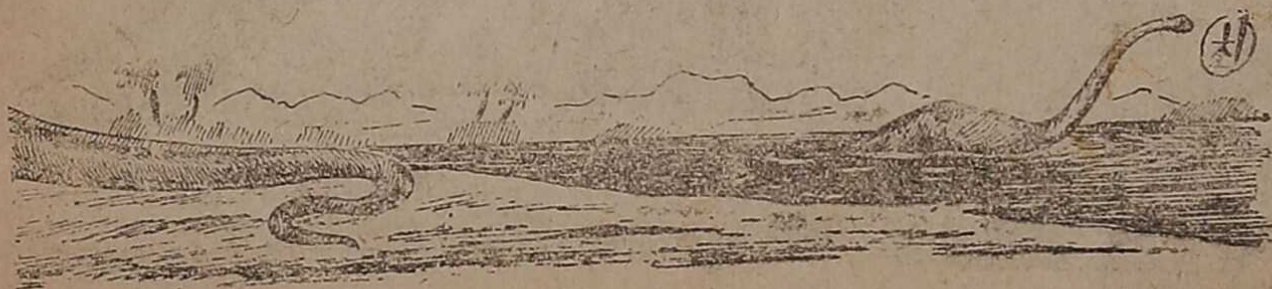




그림 2 오리주둥이 도마뱀 (아메리카 와이오밍주에서 화석으로 캐낸)

로 되어 있으며, 길고 많은 꼬리 동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꼬리가 넓적하고 오리와 같이 몸도 무거우며 또 발가락 사이에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물 속에서 살기에는 알맞게 생겼었습니다. 또 주둥이가 넓적해서 오리와 비슷하며 잇발이 나 있으나 이 짐승이 무엇을 주워 먹고 있는 것은, 멀리서 보기에 아마 물 속에 있는 무슨 작은 물짐승을 잡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짐승은 땅 위에서 살다가 다시 먹을 것을 찾아서 물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을 돌려서 이전 언덕을 바라 보십시오. 보기에 사나운 짐승이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림 3) (그림 4)

그 등 줄기에는 온통 뼈판으로 된 두 줄기의 갑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언제나 입고 있는 갑옷 쉼인데 그 등줄기 북판에 있는 갑옷은 높이가 65 센

지 가량이나 됩니다. 이 짐승 꼬리 끝에는 갑옷과는 다른 뼈죽한 큰 못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베미리동물을 갑옷도마뱀(劍龍), 다시 말하면 갑옷을 입은 도마뱀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상스러운 짐승은 그 등 위에 무거운 뼈판을 잔두 걸머졌기 때문에 몸 무게가 대단히 무거워져서 물 속에서는 생활을 못할 것이며, 따라서 저 숲밭을 헤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 등 위의 뼈판은 꼬리를 채찍과 같이 휘적거리면서 다른 짐승이 도마뱀을 막아 내기에는 알맞게 생겼습니다. 또 이 짐승의 네 다리를 비교해서 보니 아마 맨 처음에는 다

른 도마뱀들과 같이 두 뒷다리와 긴 꼬리로 걸어 다니던 것이 뼈판이 무거워져서 앞다리도 땅에 붙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머리는 얼마나 작은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짐승의 머리뼈가 그 몸집에 비교해서 그 얼마나 작다는 것은 아마 다른 땅 위 짐승 가운데에서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잇발은 92 개나 있지만 그 모두가 대단히 작고 연약해서 그 먹성은 굳은 나무나 다른 짐승의 고기는 먹지도 못하고 지금 그 짐승은 나무를 헤치며 나오는 무슨 작은 곤충이나 잡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여러분은 그렇게 먹성도 빈약한 짐승이 왜 그러한 철갑 같은 갑옷의 무장(武裝)이 필요한가를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다음 언덕을 보십시오. (그림 4) 하늘이라도 무너뜨릴 듯이 으르렁대며 정말 무서운 베미리짐승이 숲 속에서 엉큼 기어 나옵니다. 이 베미리짐승은 뒷다리로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은 그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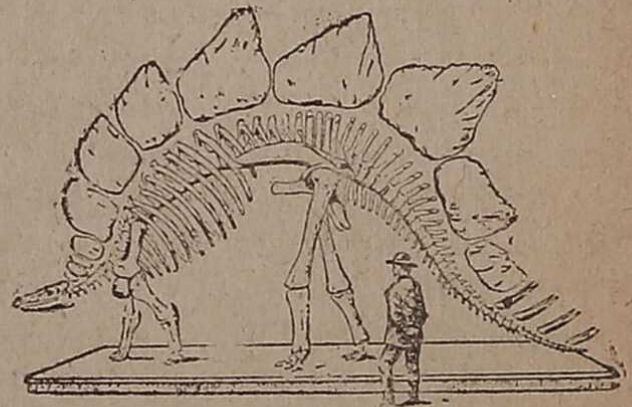


그림 3 갑옷 도마뱀 (몸길이 9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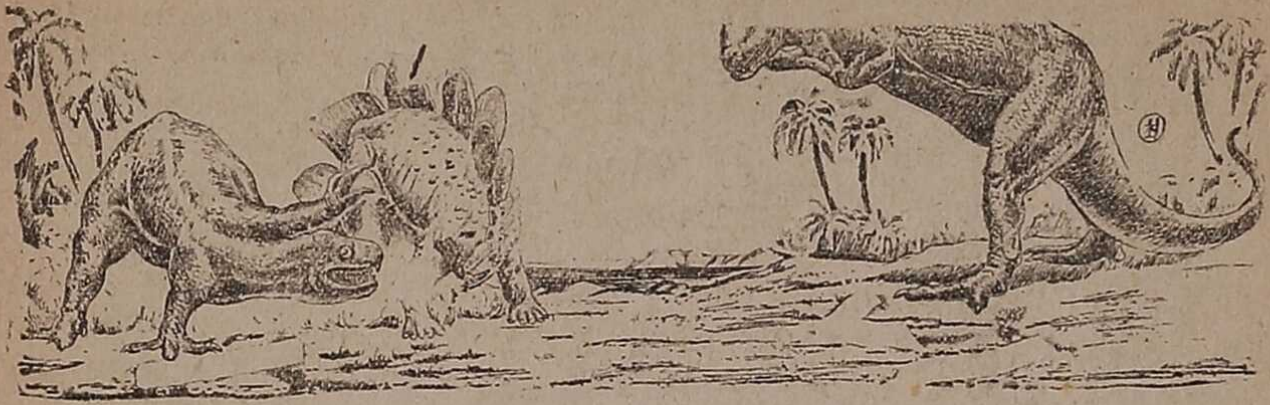


그림 4 알로 도마뱀 (아메리카 와이오민주에서 화석으로 캐냈음)

게 못생긴 짐승을 보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큼지막하고 잇발은 칼날 같이 번득이고 있지만 그 몸집이며 뒷다리 그러고, 꼬리는 몹시 없게 크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앞다리는 지나치게 작은 까닭으로 마치 본래는 더 자랄 것이 무슨 고장으로 자라지 못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다리는 걸을 적에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굳세고도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 있습니다.

이 무서운 배미리짐승은 알로도마뱀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연못가에 있는 잡옷도마뱀은 그의 무장이 넉넉히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짐승들은 이 처음 보는 짐승을 보기가 무섭게 허둥지둥 뒤뚱거리며 연못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들은 이 처음 보는 동물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敵)이며 또 육식하는 엄청이 도마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못 속으로 뛰어 들어 가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별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

식을 하는 엄청이 도마뱀은 깊은 물 속에서는 걸지 못하니까 그들을 쫓아서 연못 속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육식을 하는 알로도마뱀의 형제가 힘을 합해서 잡옷도마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공격을 할 때는 먼저 조그마한 잡옷도마뱀을 찾아내어 “옴다! 여기에 잡아 먹기 쉬운 미끼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리로 덤벼듭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 종류의 육식을 하는 엄청이도마뱀을 알로도마뱀(異龍) 즉, 뛰어 덤비는 도마뱀이라고 부르는 까닭을 이해하시겠지요. 순식간에 이 두 마리의 육식을 하는 알로도마뱀은 잡옷도마뱀을 잡아 놓고 고기 잔치를 떠벌이고 있는 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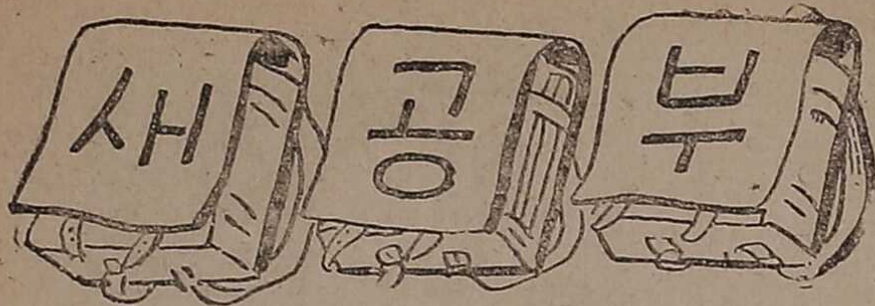
이 육식하는 알로도마뱀이 작은 잡옷도마뱀의 뼈에 붙은 살까지 뜯어 먹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소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무가지들 꼭 붙잡고 있어야만 그 짐승의 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육식하는 알로도마뱀은 키가 5미터 밖에는 안되

어서 기린(麒麟)만큼은 크지만 나무를 기어 오르지 못합니다.

별안간, 여러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어떤 짐승이 날아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새 인줄로 생각하시겠지만 점점 가깝게 날아오며 따라서 결코 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새라고 치더라도 날개에 털이라고는 조금도 나지 않았 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날으는 배미리짐승, 다시 자세히 말하면, 일종의 박쥐도마뱀(翼龍)이라고 부르는데 박쥐도마뱀이라는 것은 박쥐 같은 날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날으는 배미리짐승을 보시면 어찌하여서 그러한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인지 쉽게 아실 것입니다.

그의 날개는 양쪽 손 가운데에서 가장 긴 네댓번 손가락 끝으로부터 그 뒷다리까지 덮여진 살 가죽으로 된 것입니다.

이 배미리짐승도 그 날카로운 잇발을 보지만 하여도 알 수 있는 육식을 하는 짐승입니다.



문 제 (6) (시간 20분)

◎문제의 목표

이 문제는 한 글자를 완전하고 바른 글로 만드는 것으로 한 가지 글자를 보고 이에 관계 있는 것을 생각하여 내는 힘을 보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어 문제로 많이 쓰이던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한 문제는 글로서 올바른 뜻이 통하는 글도 있지만 한 가지 일이 이치에 맞고 안 맞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글로서만 바른 것이 아

(지 도)

문교부 교수 요목 제정 위원
문교부 교감서 편찬 위원

윤 태 영

나라, 이치로도 잘못아야 할 것이다. 판단을 틀리게 하면 전혀 틀린 대답을 할 것이다.

◎설 명

다음 문제를 읽고 앞 뒤의 글의 뜻으로 보아서 ○○표 속에 뜻이 맞는 글자를 써 넣어 보자.

◎보기

무지개는 ○○가지 빛이 있다. (일곱)

- (1) 땅 속 아주 깊은 곳에 바위가 녹아서 물이 되어 있다. 이것을 ○○○이라고 한다.
- (2) 땅 속 깊은 곳은 ○○다.
- (3) 땅 속에 있는 뜨거운 바위 물은 땅 위로 솟아나와 ○○을 만든다.
- (4) 땅 속의 바위 물이 솟아 올라 식어서 바위가 된다. 이런 바위를 ○○○○○라고 한다.
- (5) 죽물을 보면, 검은 것, 흰 것, 유리 같이 비쳐 보이는 것, 들이 서로 꼭 붙어 있다. 검은 것은 ○○○이고, 흰 것은 ○○이고, 비쳐 보이는 것은 ○○이다.
- (6) 바다물에 들어 있는 회는 바다 밑에 가타앉는다. 이것이 위의 층에 눌러서 딱딱한 ○○이 된다.
- (7) 이렇게 바다 밑에 눌러서 딱딱한 찌꺼기 같은 것을 ○○○○○라고 한다.
- (8) 찌꺼기에 ○○을 떨어뜨리면 거품이 난다.
- (9) 물에 된바위나 물에 된바위가 큰 압력과 열을 받아서, 그 성질이 변한 것을 ○○○○○라고 한다.
- (10) 대리석, 편쪽돌은 ○○○○○다.
- (11) 돌소금은 ○○, ○○○○○, ○○들의 나라에서 많이 난다.

- (12) 사해에는 바다물보다 훨씬 많은 ○○이 녹아 있다.
- (13) 동룡굴은 ○○로 되어 있다.
- (14) 찌꺼기는 ○○○○가 들어 있는 물에 녹는 성질이 있다.
- (15) 동룡굴 속에 굴 천장과 바닥에 회색의 고드름이 있다. 천장에 생긴 고드름을 ○○○○이라고 하고, 바닥에 생긴 고드름을 ○○이라고 한다.
- (16) 찌꺼기, 모랫돌, 펄돌 같은 물에 된바위에는, 흔히 옛날의 동물이나 식물이나 식물의 포적이 들어 있다. 이것을 ○○이라고 한다.
- (17) 짐승들의 털이 여름에는 엉성해지고, 겨울이면 배어지는 것도 환경에 ○○하는 성질의 하나이다.
- (18) 우리 사람이 ○○○○○에 속하는데, 사람도 길동물에서 발달한 것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다.
- (19) 중국에 있는 황하에는 하루에 300,000톤에 가까운 ○을 황해바다로 날라 간다고 한다.
- (20) 백두산과 개마 고원, 그리고 한라산이며 아름답기로 유명한 해금강의 총석정, 그 외에 울릉도와 독도 들은 모두 ○○이 터져서 생긴 것이다.

(21) 백두산 꼭대기의 천지와 한라산 꼭대기의 백록담은 바로 화산이 터진 ○○○이 있다고 한다.

(22) 낫그릇을 젓가락으로 두드리서 소리를 낸 다음에 연필이나 붓대를 낫그릇 갖에 꼭 대어 보면 연필이나 붓대는 ○ 것이다.

(23) 모든 소리가 다 물결이 ○○○ 생기는 것이다.

(24) 종이 울면, 종 바로 옆의 공기는 배어졌다 성겨졌다 한다. 따라 공기 속에는 배고 성긴 결이 생긴다. 이것을 ○○ 또는 ○○○이라고 한다.

(25) 젓가락으로 식기를 때리면, 그 식기는 ○○. 이 식기의 뚝은 그 둘레의 공기를 ○○한다.

(26) 소리결은 아래, 위, ○○으로 다 전해간다.

(27) 세상의 모든 물체는 기체, 액체, 고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기는 ○○이고, 물은 ○○이고, 또 쇠나 나무는 ○○이다.

(28) 소리는 공기 뿐만 아니라, 실, 나무, 쇠, 돌도 전해간다. 또 ○○는 물 속으로도 전해간다.

(29) 그 중에도 소리는 기체보다 액체 액체보다 ○○를 더 잘 전해간다.

(30) 소리가 공기 속을 전해 가는 속도는 1초에 한 ○○○m인데, 강철 속에서는 공기 속의 속도의 열 갑절이 넘는다.

(31) 풍물놀이나 음악회에 가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때에 여러 가지 소리가 모두 한 번에 나는데, 각 소리가 다 ○○게 들린다.

(32) 만주 벌관과 반도 안에는 아득한, 옛날에 벌써 우리 민족의 뭉쳐진 여러나라가 벌어졌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옛 기록에 나타난 나라가 곧 ○○이다.

(33) 고조선을 처음 세웠을 때 민족의 중심이시요, 나라의 대표가 되시던 어른이 곧 ○○○이시다.

(34) ○○ ○○은 우리가 오래동안 혈통적

방학일기

서울 북성 국민학교 6년

최대식

1월 4일 화요일 (개입)

그렇게 훈훈하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영하 11도까지 온도가 내렸다

세살되는 누이동생 정원이가 기침이 매우 심해서 약으로 재를 구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현이와 함께 나가 봤다. 이 가게 저 가게 돌아 다녔지만 참새 파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하다가 어린이 세계에 가서 “보물섬”이라는 만화물 사 가지고 오다가 우연히 새 잡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 다녔다. 한참이나 따라 다니다가 사

정 사정애기를 해서 청을 했더니 참새 한 마리를 거저 주고 가버렸다.

밤에 고아서 약으로 정원을 졌다.

1월 27일 목요일 (개입)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려니까 동네 아이들이 나가 놀자고 하여서 밖에 나가 놀기로 하였다.

잡은이와, 제드, 나 이렇게 셋이 구슬 치기를 하여 내가 세 개 따고 잡은이는 뽕 땀다.

방앗간에 가서 흰떡을 한 말 해와서 동네 몇 집에 나누어 주고 우리도 맛 있게 먹었다.

(血統的), 종교적 할아버지로 높이고 믿어 오는 국조(國祖)이시다.

(35) 10월 3일을 ○○○이라 하여 예와 이체를 통하여 한결 같이 기념하여 온다.

(36) 만주 남쪽과 반도 중부에는 예로부터 고조선, 진번(眞番), 임둔(臨屯) 세 나라가 벌려져서 오다가, 뒤에 중국으로부터 내란에 쫓겨 온 연나라 사람인 ○○에게 빼앗겼다.

(37) 반도 남쪽에는 예로부터 진국(辰國)이 있어 오다가 뒤에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의 세 나라로 갈라졌으니, 이것을 ○○이라 한다.

(38) 상고 여러 나라에서는 하느님께 제사하고 위하는 ○○○가 많이 유행하였다.

(39) 고구려의 처음 임금은 ○○○이다.

(40) 백제의 처음 임금은 ○○○이다.

(41) 신라국의 처음 임금은 ○○○○이다.

이름 없는 별들

(4) 정 인 력

그림 · 정 현 응



제5장 낙엽지는 계절

(1)

학교 쪽으로 뚫린 셋골목을 다 빠져나갈 때까지, 창수는 물고 렴이 희봉이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애처로웠다.

한 쪽 다리가 아직도 아픈지, 절름바리 모양으로 뒹뒹 걸 어가는 꼴이 몹시 가여워, 창수는 곧 그 뒤를 따라가서 부축해 주고 싶었다. 아니, 가지 말라고 뜰어말리고 싶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희봉이 뒷모양이 아주 사라진 후에도 창수는 한참동안이나 뒹 잃은 사람 같이 멍하니 서 있을 뿐 이었다.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 동안 에, 자기도 모르게 별안간 눈시 율이 뜨끔했다. 외로웠던 것이 다.

.....친한 동무들은 다 학교에 가버리고 말았다, 그렇다, 희봉 이까지도.....

희봉이 뒤를 따라 불현듯 자 기도 학교에 가보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 생각과는 반대로, 창수 발은 학교와는 딴 방향을 향하여 거의 무의식중에 옮겨지 고 있었다.

누구보다도 학교 가까이 살 뿐 아니라 타고 난 성질로 보아서 도 응당 누구보다도 먼저 학교 에 달려갔어야 할 창수였다. 그 러나 웬일인지 창수는 학교 쪽 하늘조차 쳐다보려 하지 않았다. 집을 나올 때도 혹 학교 불 탄 자리가 눈에 뜨일까하여 창수는 일부러 외면을 하고 걸음 을 재촉했다. 어제까지의 정 든 학교 모습이 송장 같이 변해 버 렸을 것을 생각하면 창수는 학 교 가기가 죽기보다도 싫었던

것이다.

.....눈 딱 감고.....

희봉이 뒤를 쫓아갈 생각도 간절하다. 그러나, 이리저리 궁 리하는 사이에, 어느 틈엔지 창수는 고개를 넘어 장 거리를 해 매고 있었다.

“창수야.”

누가 앞을 탁 가로막았다. 고 개를 번쩍 쳐드니까, 눈 앞에서 표명이 래진이가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얼 빠진 사람 같이 걸을 걸고 있던 창수는, 한편 반갑기도 했으 나 공연히 부끄러워 얼굴이 붉 어졌다.

“으응, 난 누구라구.....잠잠 놀랐네.”

창수는 이렇게 대꾸를 하고 나서 비로소 입가에 웃음을 띄 워 보였다.

“너 어디 가니?”

“아아니, 그냥 저어……”

무엇이라 대답할 줄을 몰라 서, 창수는 말 끝을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얼른 되물었다.

“너는?”

“나, 짐부름 갔다 와!”

하면서 태진이는 고개를 반짝 쳐들고,

“애, 문안에 가서 뭘 하니, 어디서 도루 가……”

“가야……아무두 놀 아이 없어.”

“없긴 왜 없어, 모두들 학교에 갔지 뭘, 잔소리 말구 어른 하러시는대루 해!”

“애개개, 비까진……꼬마가, 겨우 어른야……요런, 전 쫓겨기 같은 게……”

“으응, 막 까불어, 너 어러기냐?”

태진이가 조막만한 주먹을 창수 턱 밑에다 갖다 대고 흔들었다.

“요게……가만 두니까……”

“가만 두지 않으면……”

채 말을 끝마치지 않고, 태진이 주먹이 슬쩍 창수 턱을 울려쳤다. 그리고는 창수가 대거리 할 사이도 없이 몸을 날려 뛰기 시작하며,

“따라오면 요옹치 하하하.”

뒤를 헬끔 돌아다보며 놀려댔다. 창수도 생긱 웃고 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요것이……”

하면서 태진이 뒤를 쫓는다. 몇 걸음 못가서 태진이는 잡힐 듯 잡힐 듯 하였다.

☆이름 없는 별들☆

지금까지 이야기 줄거리

어느 여름날—서울이라고는 하지만 시골 같은 문밖 동네의 국민학교 마당에서 영화를 놀리게 되었는데, 시작한지 5분도 못되어 별안간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학교에서 큰 불이 일어났다.

이튿날 구경갔던 희봉이는 그만 어린 몸이 여러 어른 틈에 밀리다가 쓰러져 채이고 밟히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다리를 다친 희봉이를 문병한달시고 학교 동무 태진이, 종호, 갑주, 옥순이, 창수들이 찾아와서 여러 얘기를 하던 끝에 태진이 얘기로 일본놈이 학교에 파묻고 간 폭탄이 터져서 불이 났다는데, 아직 누가 불을 붙였는지는 모른다고하며 암만해도 그날 구경 간 아이들이 수상하다고 하더라 한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창수의 태도가 좀 이상해 보였다.

불에 타버린 학교는 몹시 쓸

쓸했다. 어느 틈에 누가 먼저 하자고 했는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전생도가 학교에 모여 개미새끼가 산을 무느려는 듯 전생님을 드와 일을 시작했다. 매일 이일이 계속되자 아이들은 이 것이 일과 같이 되어 먼 곳에 사는 아이는 빈도까지 갖고 와서 일을 했다. 어느날 종호와 갑주가 운봉이를 부르러 왔을 때 다리를 다친 희봉이가 저도 간다고 나서다가 운봉이가 못가게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학교로 달려 가는 길에 창수를 만났다. 거기서 희봉이는 창수보고 같이 가자고 끌었으나 이상하게도 창수는 싫다고 뿌리쳤다. 이상한 일이다. 그 일이 있던 뒤 갑주는 전보다 명랑해졌는데, 창수는 그와 반대로 늘 짐울했다.

타버린 학교를 한참 보다가 희봉이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 옥순이와 함께 일을 하고 있을 때 옥순이가 희봉이의 옆구리를 꼭 짚었다.

“아, 어머니……” 희봉이 어머니가 학교를 향하여 달려 오고 있지 않은가……

(2)

태진이와 창수가 어깨를 나란히 하여 마약 고개를 넘어서 동네 어구에 당도했을 때다.

별안간 창수가 주춤하고 걸음을 멈췄다.

“저거……희봉이 아니냐?”

“어디?”

“저기, 저 골목 앞에 서 있는 거 말야.”

하더니, 별안간 창수는

“맞았어, 희봉이허구 희봉이 어머니야.”

악 쓰듯 말하고 쫓살 같이 그 쪽으로 달려갔다.

희봉이는 어머니에게 팔을 잡힌 채 발버둥질을 치며 징징 울고 있었다.

“괜찮대두……응응……엄만 때어 니……남 박보를 만들구……응응……”

그러나 희봉이 어머니는 역지로 희봉이 팔을 잡아 끌며,

“너, 왜 이러는 거냐? 어린애 모양으로, 커단 게 행길에서 징징 울구……말 안들을 데야? 팔러 가!”

정말 역경이 나신 듯, 창수가
아까부터 옆에 와 서 있는 것도
모르시는 양이었다.

희봉이는 여전히 흐느흐느 흐
느끼며 어머니에게 끌려 간다.
그 뒤는 멧적게 한참 따라가던
창수는, 거진 희봉이 집 앞에 다
가서야,

“아주머니!”

하고 불렀다.

“누구야? 창수냐?”

희봉 어머니는 여전히 희봉이
손을 잡은 채 뒤를 돌아다보시
더니,

“다침 잘 왔다, 어서 들어오너
라!”

하시면서 안으로 들어가셨다.

창수도 뒤 따라 들어가며,

“희봉이 왜 그래요?”

“글쎄...들어와서 얘기좀 들어
봐라! 아직 몸두 싱허지 않은
년이...찰 기가 맥히지!”

희봉 어머니는 다루에가 털썩
주저앉으시며, 가쁜 숨을 돌릴
사이도 없이,

“방에 들어가 기만히 누워 있
어. 누가 널더러 그런 시키지 않
는 일 허래든? 정신 빠진 년!”

아직도 노여움이 안가신듯, 희
봉이를 나무래신다.

희봉이는 창수가 온 줄 알자
또 울음이 더지려는 것을 억지
로 참고 있었으나, 방에 들어가
자기 자리에 눕고 보니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저 미친 년이, 뭐가 서러워서
또 울어, 어서 주둥아리 다물지
못해?”

희봉 어머니가 또 버럭 소리
를 지르셨다. 창수도 그 옆에가
걸터앉으며,

“아주머니, 인제 가만 두세요.”

그리면서 발(簾) 넘어로 안방
쪽을 끼웃하였다. 희봉이는 자

리에 엎드린 채 좀체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누가 어찌니? 지가 자꾸 우
니가 그렇지...글쎄, 창수야, 얘
기좀 들어 봐라...어저께두 선생
님이 아직 기동해서 안된다구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아까 잠간
집을 비였더니, 그 새를 못잡구
살짝 빠져서 학교엘 갔구나!”

“네, 아까 저두 만났어요!”

“학교에 간 것만 해두야단인
데, 놀라서 쫓아가 보니까, 글쎄
땀을 뿜뿜 흘리면서 동무 아이
들허구 힘 드는 일을 허구 있구
나. 기가 맥히겠니, 안맥히겠니
? 그래서 억지루 끌구 왔더니,
동무를 현대 부끄럽다구, 인제
안아픈데 왜 그러느냐구...그래
서 저 앙탈이란다. 저년이 정신
나갔지 뭐냐? 그래 4학년이
나 된제 그런 지각쯤두 없어?”

희봉 어머니는 그러시면서 또
한 번 안방 쪽을 흘기신다.

“놀아 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
겠쇼, 뭐...인제 고만 두세요.”

희봉이가 집에 돌아온 것은 여
간 다행한 일이 아니라고 창수
는 생각하였다. 희봉이를 위하
여 놀아 준다느니 보다는 자기
가 희봉이와 놀 수 있다는 것이
더 반가웠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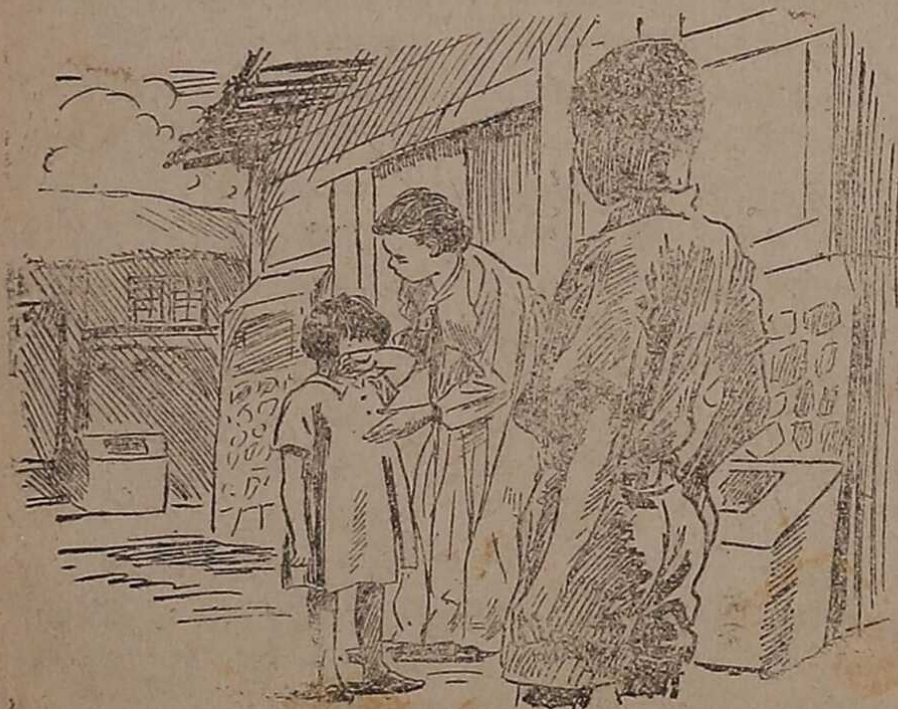
창수는 성큼 올라서서 안방으
로 들어가며,

“희봉아, 울지 말어.”

다정스럽게 희봉이 옆에가 쪼
구리고 앉았다.

(3)

먼지루성이, 흙루성이 속에서
힘에 붙이는 일을 하는 동안에,



아직 아물지 않은 다리 상처로 나쁜 균이라도 들어갔던 모양이다. 그날 밤부터 희봉이는 열이오르기 시작하고 다리가 쭈신다고 잠을 못 잤다.

이튿날은 부쩍 더했다.

하룻밤 사이에 상처가 시뻘겋게 부어 올라, 언저리가 주먹만이나 했다.

“그거 봐라, 내기 뭐래든... 어른 말 안 들으면 그런 법야!”

상을 쟁그리고 누워 있는 희봉이를, 희봉 어머니는 침아뚜짓지는 못하시고 어떻게 타일르시는 것이었으나, 그 다음날부터는 그것 조차 못하셨다. 밤 사이에 또 부기가 더하여, 언저리도 넓어졌고 속 깊이 명우리가 섰던 것이다.

희봉 어머니는 꾸짖기커녕은 울가망이 되어,

“이걸 어떡한다 말이나, 아이구, 이거 큰 일 났구나!”

부랴부랴 의사를 부르고, 회사에 가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고 하느라고 희봉이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그러나, 의사의 말이,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따이 아징이나 턱이시구, 고약이나 발러두시지요. 그래서 삭지 않구 굼으면, 그 때 가서 짜지요.”

꽤 수롭지 않게 여기는 바람에



집안 사람들도 깜빡 속았던 것이다. 그래서 또 며칠 동안은 헛되게 보내고 말았다.

그렇게 헛되이 날을 보내는 사이에, 그러나 병은 아주 고결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에 희봉이 녀적다리는 누렇게 굵고 말았다. 의사가 와서 두 치 가랑이나 짜고, 고름을 뽑았다.

고통도 가시고, 열도 내려, 그것으로 나오려니 했다. 의사뿐 아니라, 집안 사람들도, 이니 희봉이 자신도 그렇게 생각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문득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도 의사가 대단하지 않게 말하는 바람에, 외과 전문의

사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잘못이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엔 때는 이미 늦었었다.

수술한 자리가 이상하게도 아물지를 았았다. 아물지를 았을 뿐 아니라, 점점 더 언저리가 시뻘겋게 커가고, 또 새로운 명우리가 서는 것이다.

“아저씨!”

하루는 희봉이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 주던 창수가, 희봉이 잠 든 것을 보자 가만히 희봉이 아버지를 불렀다.

“왜?”

“희봉이.....저어 입원시켜야 할까 봐요. 외과병원예요.”

“음, 글썸다.....”

희봉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희봉 아버지도 마침 그때, 그것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



아 협
상라기

작문과 동요

다섯번째
대모집

★1년에 한 번 밖에 없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아협”에서는 다섯번째로 여러 분 소학생들의 구슬 같은 작문과 동요(동시)를 모집합니다. 글이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를 거짓없이 적으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올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글아 주실 선생님은—장 지영(張志暎)· 이 희승(李熙昇)· 피 천득(皮千得)· 이 병기(李秉岐)· 박 영중(朴泳鍾)· 윤 석중(尹石重)· 조 풍연(趙豊衍)—일품분입니다.

이다.

—아무래도 내가 너무 소홀했지.

전작 이렇게 되기 전에, 시내로 데리고 가서 고명한 외과의사에게 보였더라면 이렇게 되기 전에 구해낼 것을...하고 회봉 아버지는 지금 여간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래도...내 말때루 해야 할 것 같다.....”

한참만에 회봉 아버지는 탄식하듯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4)

종호네 집 쪽에서 옥순이와 갑주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바탈길을 걸어 내려왔다.

사이 좋은 품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남매인 줄로 알 것이다.

해는 아직 높다랗게 뜨지 않았다.

그러나, 부지런한 이 동네 아이들에게는 오정까지가 여간 지루한 시간이 아닌 것이다.

“어딜 갔을까?”

갑주가 혼잣말 같이 중얼거렸다.

“누구 말야, 오빠.”

옥순이가 고개를 갸웃둥하며 묻는다.

“누군 누구야, 종호 말이지.”

“으응, 종호.....”

“그래, 갈 때가 없을텐데..... 이렇게 일찍.....”

한 여름 동안에 얼굴도 팔 다리도 서커멓게 랐고, 어수룩한 듯하나 약빠르고, 착하고, 순박한 아이가 되고 말은 갑주다. 이제야 겨우 갑주도 이 동네 아이들 틈에 끼일 자격을 얻은 셈이었다.

“그러게 말야,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고기가 어디 있어, 비가 안와서 물이 바짝 말렸는데.....”

앞으로 방향도 사흘 밖에는 남지 않았다.

불 탄 자리 정리도 밭재 끝난 지 오래다. 아니,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으나 지금부터는 아

이들의 힘만으로는 미치지 못할 일 뿐이다. 옛그제부터는 인부들이 와서 뒤치닥거리를 하며, 일만 저질러나고 도리어 아이들은 귀찮게 여기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저절로 이 일에 흥미를 잃었다. 아이들은 뽕뽕이 제 집으로 돌아가, 저 할 일에 다시 바빴다.

그러니까 요새는 통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갑주와 옥순이가 큰 길거리로 나서려니까, 누가 뒤에서 등을 타쳤다. 책 돌아다보니까 래진이었다.

“어디 가니?”

그러나 갑주는 그것에는 대답 안하고

“너 종호 못봤니?”

불쑥 이렇게 물었다.

“종호는 왜?”

하면서 래진은 모자를 벗고 땀을 씻는다. 어디 문안에나 갈 참인지, 래진은 단정하게 모자도 쓰고 운동화도 신고 하엿

☆알아 두실 것☆

- 자격은 현재 남원에서 국민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 작품은 소학생이 자기 혼자서 지은 작품과 동요(동시)에 한합니다.
- 제목은 마음대로 하고 길이는 작문에 한하여 1,000자 안으로 써야 합니다.
- 보내시는 작품에는 자기 이름과 나이, 학교 이름과 학년을 똑똑히 적어 보내십시오.

★상★

- 1 특등-2명에게 각각 상품과 상금 5,000원
- 2 우등-10명에게 각각 상품과 상금 2,000원
- 3 입선-입선된 분 전부에게 각각 상품과 상금 1,000원
- 4 학교상-훌륭한 작품을 많이 내신 학교에는 따로 학교상을 드리겠습니다.

4283년 2월 1일

아 협

- 보내실 곳 서울市 鍾路二街永保빌딩兒協總務係
- 작품은 되도록 학교에서 모아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감은 4283년 4월 20일까지 도착되도록
- 발표는 4283년 5월 5일 각 신문과 "소학생" 6월 치에.
- 응모 작품은 일체 돌려보내지 않으며, 당선 작품의 관권은 "아협" 소유로 합니다.
- 독자증은 필요없습니다.

다.

“왜든지 말야. 종호 못봤느냐 말야.”

“종호는 병원에 갔을 거야.”

“병원에?”

“그래.”

“왜, 어디 아프대더?”

“이런 바보.....”

하더니 래진이는 입때 그것을 몰랐느냐는 듯이,

“종호가 왜 앓나, 희봉이한테 말이지.....잡 년 안가련? 나두 지금 가는 길이다.....”

“어딜 말야?”

갑주는 아직 희봉이 다리가 아주 덧나서 문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이야기를 듣자 갑주는 우순이더러 물었다.

“너는 어떡허련?”

“오빠 허는데루.....”

“그럼, 내 집에 가서 여쭙어 보구 오껴.....래진아, 잠깐 우리 집에 같이 댕겨 가 응?”

싫다는 래진이를 갑주는 꼭 붙잡고 자기 집 쪽으로 잡아 끌

었다.

(5)

희봉이는 하얀 침대 위에 똑바로 누워, 하얗게 철한 천장을 똑 패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여러 날 누워 있었기 때문인지, 혹은 갈 먹지를 못해서 그런지 얼굴에 핏기라고는 없었고, 축 늘어진 팔 다리에는 맥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앞머리가 흐트러져 이마를 덮었으나 희봉이는 그것을 걸어올릴 생각조차 안했다. 이따금씩 이맛살을 찌프리고, 못견디겠다는 듯 지긋이 눈을 감는다. 때때로 다리가 몹시 쑤시는 모양이었다.

별안간 병실 문이 와락 열리며, 래진이를 앞세우고 다음에 우순이, 그리고 갑주가 후닥닥 뛰어들어왔다.

우순이는 빙에 들어서자마자,

“희봉아.”

하면서 침대 곁으로 뛰어왔다. 그러나 얼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방안의 즐거운 공기에 터눌리어, 주춤하고 서서 놀란 듯한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둘러보았다.

종호와 운봉이와 칭수가 창가에 기대서서 말없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침대에 누운 희봉이도 눈란 커다랗게 뜬 채, 대답이 없다.

한참동안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다. 방 안에 야속하게도 바람 한 점 없다.

누구든지 먼저 말을 꺼내야만 방안의 이 침묵은 깨뜨려질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그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렇게 멀거니 서 있기도 겨면쩍고, 그렇다고 도로 나갈 수도 없고 해서, 우순이는 가만히 숨을 죽이고 희봉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서 의자에 앉았다.

그것을 본 갑주와 래진이도 발을 옮겨 창가로 갔다. 서로

눈으로만 이론케 했을 뿐, 말들은 여전히 없다.

누웠던 희봉이 가만히 손을 내밀었다. 옥순이가 그 손을 꼭 쥐었다.

또 얼마동안 그런 가운데 침묵이 흘렀다.

문이 바사시 열렸다.

일곱 아이들의 눈이 일제히 그리로 쏠렸다. 들어오는 이는 희봉이 어머니였다.

옥순이가 의자에서 일어서며, 인사도 채 못하고 자리를 비켰다. 창가에 서 있던 아이들도 일제히 그리로 고개를 돌렸다.

희봉 어머니는 웬 일인지 얼굴이 창백했다. 앓는 희봉이 보다는 더 힘 없는 걸음걸이로, 희봉 어머니는 곧장 옥순이 앉았던 자리에 와 앉으신다.

또 문이 덜컥 열렸다. 간호부를 앞세우고 의사가 들어왔다.

희봉 어머니는 의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벌떡 자리에서 뛰쳐 일어나시더니,

“선생님!”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선생님! 희봉두.....아무래두.....”

희봉 어머니는 말을 못다치고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의사는 딱한 듯이 한참 그것을 바라보고 있더니, 간호부를 불러오고,

“아이들은 다 나가라지!”

구짚는 듯 말했다.

복도로 쫓겨나온 아이들은 희봉이를 에워싸고 한군데 모여섰

다.

잡주가 겨우 입을 열었다.

“운봉아, 왜들 그러니?”

운봉이는 고개를 숙이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다리를.....다리를 갈라야 한대!”

“뉘?”

“다리를 갈러?”

눈이 휘둥그래지며 제 각기 한다디씩 부르짖었다.

그 때였다. 운봉이 곁에 섰던 창수가 별안간 악 소리를 지르며, 병실 문 앞으로 달려가더니 문 손잡이를 잡고 그대로 그 자리에 꼭 쓰러졌다.

얼굴이 핏색한게 까무러친 모양이었다. (계속)

가정 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책

어린이 한글 책

윤 석중 꾸밈·홍 우백 최 수섭 그림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동생들이 말을 배우고 글을 깨치는데 참으로 재미 있고 유익한 책!

5도 색색이 그림·국판 36면 정가 200원

그림 애기책 겨울 여행기 120 원
김의환 그림

아협 발행·문장각 발매

★장편 소녀소설★

하얀 쪽배

정 인택 지음·정 현웅 그림

“소학생”에 연재되어 많은 독자들의 가슴을 조이게 하던 정인택 선생이 지으신 장편소녀소설 “하얀쪽배”가 이제 아름다운 책으로 되어 나왔습니다. 어린 소녀의 몸으로 마차를 끌어, 병든 어머니와 늙으신 아버지를 봉양하던 가련한 경애.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영경 집에 돌아오시지 않게 되자, 불쌍한 경애는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씩씩하게 싸워 나갈까요. 모두 눈물겨운 읽을 수 없는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 국판 100 페이지·값 250원·송료 50원 ★

서울市中區太平路二街八一 新大韓圖書

電話本局② 6532番 振替서울 621番

백두산의 아침

홍종인

1

백두산 정상봉—바로 천왕봉(天王峰)(또는 병사봉(兵使峰))이라고도 한다) 밑에서 막영(幕營)을 하고 아침 눈이 뜨인 것이 칠월 삼십일 새벽 다섯 시이었다. 해가 오르기까지는 아직 십여 분의 여유가 있었으나, 동편 하늘은 벌써 번쩍게 물들어 있었다. 천막에서 나오는 길로 우리는 천왕봉 맨 위 들쭉리에 올라섰다. 비단과 같은 아침 안개는 산 밑에 자욱하여 멀리 우뚝우뚝 서 있는 무두봉(無頭峰) 남포태산(南胞胎山) 북포태산(北胞胎山)이며 가까이는 연지봉(燕脂峰) 간박산(間迫山) 등의 봉우리가 바구 위에 뜬 섬 같다. 어윽고 햇발이 오르니, 백두산—우리 조국의 주봉(主峰)부터 환하게 밝아 오는 것이다. 바람은 맑고 고요한 산상의 이 아침.

장엄하고 깨끗하고 식석한 이 광경이야말로 우리 백두산의 가장 거룩한 일순간이요, 이것이 또한 우리 겨레가 반만년의 건 역사를 두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 내려온 길고 오래면서도 항상 새롭게 발전하려는 끈기있는 정신이라고 할 것이다. 돌아 보니 장대하고도 능능한 천지는 만고의 신비(神秘)를 간직한채 말없이 그윽하게 잔잔하다. 이 때에 누가 생각했으랴! 천지의 호수(湖水) 위로 높이 날으는 무수한 새의 떼! 화살같이 오고가며 기운차게 저저귀는 아침의 노래! 그것도 한두 마리나 수십 마리가 아니고, 수백마리가 절벽을 끼고 들며 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기가 넘쳐나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영봉의 아침, 천진의 송가(頌歌)라고 할까, 이것은 마을에서 보는

보통 제비와 종류는 같지만, 그보다 조금 더 크고 날쌔게 생긴 산제비란 것이다.

2

천왕봉에서 마지한 백두산의 아침, 조국의 주봉의 새벽을 산제비의 대자연의 합창을 마음껏 즐기며 나는 때로 이때 우리 겨레가 꿋꿋하고 나가려고 해매이던 식석하고 끈기 있는 옛 정신이 무엇이었던가? 생각이 잠겼다. 그 옛날 살림집도 변변하지 못하던 그 옛날, 땅 속에 줄을 파던가 바위 틈에 나무가지나 엮어서 문짝을 만들어 살던 그 때, 산의 나무 열매나 때 먹고, 산짐승이나 잡아 먹으며 살던 그 옛날, 같은 족속끼리 서로 뭉치어 이 산골짜기로 저 산골짜기로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던 그 때를 생각한다면, 그 때 어두운 밤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답답한 일이었겠는가. 따라서 밤이 오면 해가 뜨고 밝는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동편의 밝은 아침, 그것은 무상한 광명(光明)과 희망(希望)과 기쁨을 말하는 것이요, 또 앞으로 앞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나가는 정신이 그 가운데 걸었던 것을 생각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으리라는 것 뿐 아니고, 사실 그러했을 것이다. 지금, 위에서 말한 백두산의 새벽이라고 한 “새벽”이 어떤 뜻을 가진 말이나를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짐작은 확실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새”라는 말은 원래 동(東)쪽을 가리키는 말로 동풍(東風)을 지금도 “새 바람”이라고 함은 그것 때문이다. 그러나 그 뜻은 다시 새것(新) 또는 깨끗(純) 또는 鮮하다는 뜻으로도 되었다. 그리고 “백”은 “밝”다는 말이 변한 것이다. 원래는 “붉”이라는 말이 후에 “밝다” “붉다” “별다”하는 등으로 변했다. 아침별이 “새발다”는 것은 아침 햇볕이 진하게 붉다(眞紅)는 뜻도 되고, 희고 밝다(白光明)는 뜻도 되는 것이다. 흔히 아침에 해 떠오르는 광경을 말할 때

에,

—환하니 동(東)이 뜨고 붉은 해가 솟아 오른다고 한다.

이 말은 무겁게 짐짐하고 어두운 밤이 동쪽 하늘로부터 새이기 시작하여 어두운 하늘이 터져서 환(白光)하니 희게 밝아오면서 햇볕이 별장게 솟는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생각해 보면 날이 밝는 “새벽(曉)”이란 말은 우리 겨레의 말로서는 얼마나 오래고 오랜 옛날 때부터 내려온 말인가 알 수 있으며, 또 그 옛날부터 어둠 속에서 밝은 아침 광명의 세계를 찾아 얼마나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애써 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동방의 밝음, 밝은 아침, 크

고 넓게 환한 아침,

—깨끗하고 순결한 아침,

—올고 바로고 거리낌 없는 하나의 길,

우리 겨레가 밟고만 역사 이천

옛날부터 살길을 찾아 나간 그 방향이 동방이요 곧 밝은 세계이었음은 가장 뚜렷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 뿐 아니고, 밝다는 것 별은 곧 불(火)에 통한다. 우리 사람이 오늘날 같이 문명을 가져게 된 그 첫길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불이란 것을 처음 발견해 낸 그것이다. 돌과 돌을 맞두드리던가 나무와 나무를 몹시 비벼서 불을 내서 쓰기 시작했다. 그 불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 주로 산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아먹어도 날로 먹지 않고 구어 먹던가, 삶아 먹을 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불이라면 옛날에는 그 이상 귀한 것이 없고, 또 신기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별이라 불이라 하면 낮에는 해, 밤에는 별, 또 달, 땅에는 불, 이것은 신기하고도 오묘한 하늘의 조화로 여겼다. 더구나 추운 날 어두운 밤에 불을 피워서 불빛을 밝히고 몸을 따뜻히 녹인다는 것이 사람의 최초의 살림에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 것이었었겠는가. 끝으로 우리 나라 이름을 생각해 보아도 옛날부터 한(韓)이라고도 했고, 지금도 대한(大韓)이라고 하는 것이 크고 밝고 으뜸되는 “환”한 것을 뜻한다고 하고, 또 옛날에 조선(朝鮮)이라고 한 것도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3

아침의 “밝고 희다”는 말은 대고 이래로 광명과 희명과 희망과 기쁨을 목표로 하는 특히 우리 민족의 정신이 되어 있거니와(물론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에게서도

맨시초에 이와 같은 생각이 깊었던 것이 많지마는) 이는 우리 조국의 주봉 백두산의 이름과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만큼, 그 이름은 “밝고 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백두산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다. 약 이천 년래로 중국 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살펴본다면 대개 여덟 가지가 있다. 즉, 불함산(不咸山), 개마산(蓋馬山, 또는 蓋馬高臺), 도태산(徒太山), 장백산(長白山), 백두산(白頭山), 고르민상양(歌爾民商堅) 등이 그것이다. 그 뜻을 말한다면 모두가 “밝고 희”라는 뜻을 가졌다. 그중 해석하기 힘든 것 몇 가지를 들어 설명한다면,

1, 불함(不咸)은 무엇이나? 咸자는 지금 “함”이라고 읽지만 옛날 음은 “ㅎ”과 “기”이 합해져서 ㅎ 또는 기에 가까운 음을 했다. 그리고 “불함”이라고 읽게 되는데 이것이 “불은산”이란 말이 된다. “불은산”을 곧 “밝은산” “흰산” 등으로도 읽게 되는데 우리의 옛말에서 찾는다면 모두가 “불은산”에서 변천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희고(白) 밝(光明)다는 것이 본뜻이고 그것이 다시 “거룩하고 옳고 으뜸”된다는 뜻까지 가지게 된다. 이 “불”이라는 말은 우리 겨레의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만주의 여러 족속 중에도 “불함”이란 말이 그대로 쓰이고 있는 곳이 있다. 몽고(蒙古)쪽에 사는 오로촌족 등은 그들이 가장 높이 위하는 신(神)을 “불탄”이라고 하여 조그마하게 나무

를 깎아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모셔놓고, 복을 비는 습속이 지금도 전하고 있다. 또 재미 있는 것은 “불칸”이란 말과 비슷한 말은 구라과에도 있다. 영어, 불란서말, 독일말에 통하는 오랜 구라과의 말인 라틴 말에 “불카누쓰” 또는 “불카누쓰” Vulcanus, Vulcanus란 말에서 나와서 영어에 “불칸” Vulcan 이라고 하면 로오마신화(神話)의 불의 신, (火神) 대장간의 신(鍛冶神)이라고 하고, 또 화산(火山)을 “불개노” Volcano 라고 하는데 모두가 “불” “불”의 한가지 음으로 통하고 있으며, 또 그 뜻이 불(火)에 통하고 있음은 우리 말의 “불”(火)과 밝(明)과 어떤 관련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단히 일치되고 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백두산을 “불은산” “흰산” “밝은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연유는 대개 화산에서 터져나온 흰 돌이 덮여 있어 있고 겹하여 추이와 바람이 세기 때문에 풀도 나무도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산봉우리가 언제나 “흰(白)” 까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천 년전이면 어느 한 때 화산맥(火山脈)이 활동하여 산 위로 불을 뿜고 수증기가 연기 같이 맹렬히 떠오르고 재가 날았을지도 모른다. 그 때에 이 근방 몇백 리 또천여 리 밖에서도 백두산을 우러러 “불의산”이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불함(不咸)의 뜻은 고대 사람의 역사나 신앙(信仰)에도 관련하여 대단히 깊이 연구되고 있는

어려운 말인 것이다.

2, 개마(蓋馬)란 무엇이나? 이 말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쉽게 해석되기는 역시 “흰머리”란 말로 통한다고 했다. “개”(蓋)의 음도 옛날에는 “해”와 혼동되었으므로 해라고 하면 흰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또 “말(馬)”은 “머리”라는 말을 한문자로 붙이는데 비슷한 “말”자를 빌려 썼을 것이니, 결국 백두산의 백두(白頭)란 뜻일 것이라고 했다.

그 다음은 대개 희다, 크게 희다의 뜻을 가지고 있음은 글자의 뜻이 표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 중 하나 수상한 것으로,

3, 고르민상양 알린(Golmin sangan Alin=歌爾民商堅阿林)이란 것은 만주어(滿洲語)이다. “고르민”은 길(長)다는 뜻이고 “상양”(혹은 상강에도 가깝다)은 “희(白)”라는 뜻이고 “알린”은 산이란 뜻이다. 장백산(長白山)이란 말인데 지금도 중국측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른다. 또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만주말 “암바 상양 알린”이라고도 한다. “암바”라는 것은 “크(太)”라는 뜻이다. 즉 태백산(太白山)이란 말인데, 태백산이라고 하면 만주에서 보다는 우리 한국쪽에서 더 많이 쓰는 말이고, 우리 땅에는 태백산, 소백산이란 이름을 가진 산이 많이 있다. 이것도 백두산을 우리 국토의 주봉이요, 우리 조국의 영산임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지방마다, 가장 높고 위엄있는 산을 백두산에 비겨서 위하는 뜻을 가지는 것이다.

(들)

☆전래동화☆



전래동화

서울 도령과 충청도 남복장이 최상수

최 상 수

옛날, 충청도에 한 처녀가 있었다. 그 처녀는 부모를 여이고 살 길이 막연하여 남복으로 변장을 하고 서울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이때 또 서울에서 충청도를 향하여 길을 걷고 있는 한 총각이 있었으니 이 사람 역시 부모를 여이고 살 길을 찾아 떠도는 사람이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충청도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먼저 서울서 내려가는 총각이 충청도 남복한 처녀에게 말을 걸어,

“도령은 어디까지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남복한 한 관제로 여자인지 알아낼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남복한 한 처녀도 시침이를 메고,

“나는 살기는 충청도에서 사는데 일찌기 부모를 잃고 살 길이 막연하여 서울이 좋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찾아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서울 총각이,

“나는 충청도가 좋다는 말을 듣고 지금 충청도를 찾아 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제야 서로 통성을 하여 숨김없이 자기들의 사정을 말하고 서로 손을 잡고 의형제를 맺었는데, 서울 총각이 나이가 많으므로 형이 되고 충청도 처녀는

아우가 되었다.

이리하여 두 의형제가 어디쯤 가다가 어디서인지 말끝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데 놀랐다. 이윽고 그 말끝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두 형제가 있는 곳으로 향하여 달려 와 서울 총각을 잡아 근방에 있는 큰 나무에 매어놓고는 충청도 남복한 처녀를 말에 싣고는 어디로인지 사라져 버렸다. 서울 총각은 나무에 매어 꼼짝도 못하고 사라져 가는 자기 아우를 바라보며 영문을 몰라 한편으로는 궁금도 하였으나, 어찌 할 도리가 없어 울며 불며하다가 힘이 빠져 거의 죽게 되었다. 마침 이때 길을 지나가던 행인이 이것을 보고 달려와 구원하여 주었다. 이리하여 그는 생명을 구원하였으나 자기 아우의 간 곳을 찾을 도리가 없어 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리하여 생각 끝에 그는 옛장사를 시작하여 옛을 팔면서 이리 저리 다니기로 하였다.

어느날 그는 옛집을 지고 한 마을에 다달았다. 그리하여 온종일이 집 문 앞에서 “옛사시요.” 저 집 문 앞에서 “옛사시요.” 하고 옛을 사라고 외쳤으나, 누구 하나 내다 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리 저럭, 해는 서산에 기울어 가고

있었다. 그때 한 집에서 웬 제 집아이가 내다 보고는 들어가 버린다.

집 안에 들어간 제집아이는 안 주인에게

“웬 옛 장수가 온종일 이문 앞에서 옛사시요, 저 문 앞에서 옛사시요 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므로 이 집 안 주인은 이상히 여기고 문 밖으로 나와 보니까, 그 옛장수는 자기와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때 낫도 모르는 사람에게 잡혀와서 보니 그 사람은 큰 도둑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낫이나 밤이나 서울 도령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움지도 뛰지도 못하여 할 수 없이 이 집 도둑의 아내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서로 만나고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 서로 부둥켜 안고 말도 못하였다.

그러다가, 충청도 여자가 엽을 열어,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도둑이 집을 나갔으니 빨리 달아남시다.”하고 집안에 들어가 금덩어리 셋을 감추어 가지고 나와 마구간에 가서 천리말을 끌어다가 같이 타고는 달아났다. 밤



을 낮 삼아 달려 어디쯤 가다가 한 주막이 있었으므로, 그 집으로 들어가 사정을 말하고 좀 숨겨 달라고 말한즉, 그 집 주인은 “우리 집은 그 도둑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기 때문에 숨겨 줄 수가 없소.” 하고 거절하였다. 이 말에 금덩어리 한 개를 그에게 주며, “이것을 즐더이니 좀 숨겨 주시오.” 하고 애원을 하니, 그제야 주인은 못이기는 체하고 두 사람을 삼베로 감아 일곱 매를 묶어 칠성판에 올려놓고 자리를 가리고 자기는 머리를 풀고 흰 옷을 입고 울고 있었다.

이럴 때 집으로 돌아온 도둑은 자기 아내를 찾았으나 아내가 없으므로 점장에게 달려가 빨리 집을 치라고 호령호령 하였다. 그러자 점장이가 집을 치더니, “지금 첫째 주막에 다달았읍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도둑은 곧장 말을 타고 이 주막에 다달아 왔다. 주막 주인을 찾아 댓자곳자로 “여기 두 연놈들이 왔는데 어서 찾아 내라.”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아버님이 들어가서 경황이 없는데 웬 사람이 들어 왔다고 그러십니까.” 하고 시침을 딱 매었다. 그랬더니 이 도둑이 집 안으로 들어와 이곳 저곳을 살살이 찾아 다니다가 방 안으로 들어와 시체처럼 묶어 놓은 것을 칼로 내려 그어 일곱 매중 중간 다섯 매를 끊어놓고는 주막을 나가 자기 집으로 향하여 말을 달렸다.

이 때 주막 주인이 두 사람을 풀려 놓아 빨리 달아나게 하였다. 자칫하면 큰 일을 당할 뻔하였다. 그들은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이 주막을 나와 또 말을 타고 달려 가다가 머지 않아 도둑이 당도할 듯하여 또한 주막에 들어가 주인을 찾으니 역시 이 집도 여자 혼자 살며 도둑에게 매여살고 있었으므로 좀 숨겨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시각은 점점 임박하여 가므로 첫째 주막에서 하듯이 금한 덩어리를 주고 좀 숨겨달라고 한즉, 이 집 주인은 못이기는 체하며 뒤주 속에 두 사람을 숨겨 두고 자물쇠로 꼭 잠겨 두었다. 이럴 때 도둑놈은 집에 가서 점장이를 꾸짖으니, 점장이의 말이

“그 주막에 가서 시체 놓은 것을 보았습니까?”

하고 물으니, 도둑은 보았노라고 말하였다. 점장이는 다시,

“그런데, 그 일곱 매를 다 끊었으면 나라날 것을 다섯 매만 끊어서 물랐읍니다.”

하였다. 그러나 워낙 마음이 조급한 도둑, 은,

“그건 그렇고 지금은 어디 있

느냐?”

하고 재촉을 하니 점장이는 다시 집을 쳐서, “둘째 주막에 당도하였읍니다.” 하니 도둑은 또 말을 달려 이 주막을 찾아 오게 되었다.

주막에 들어서자마자,

“여기 두 연놈이 왔지?”

하고는 눈을 커다랗게 뜨며 말하였다. 이 말에 안 주인은 “그런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오지를 안했읍니다.” 하고 말한즉 도둑은 댓자곳자로 칼을 빼어 뒤주에 꽂아놓으며, 이곳 저곳으로 찾아다니다가 칼을 뽑아 칼 집에 넣고는 또 말을 달려 집으로 갔다. 그리하여 점장이를 책망하며 그 주막에도 없다고 호령호령 하였다. 점장이는,

“그 주막 뒤주에 들어 있었는데 칼로 찌르고 죽시 뿔았으면 피가 묻어 나왔을 것인데 칼을 한참 후에 뽑았기 때문에 치마로 살짝拭었읍니다.”

(11페이지에 계속)

우리동부



동시집

연

서울 제기동

김기현

연아!

흰 구름 뚱뚱 떠다니고
종달새 노래하는 하늘에
너는 그리도 좋냐?

응?

일래에 감긴 실 모두 풀어 주
저어 먼 새파란 하늘을
네 마음껏 훨훨 날으려마.



얼음관에서

서울 혜화 국민 학교 4년

이선호

얼음관에서 썰매 타는 아이들
중곳짓을 해가며 썰매 타는 아이들
썰매는 얼음관에서 잘도 갑니다.
누구 썰매가 잘 가나, 내 썰매가 잘가지.

얼음관에서 팽이 치는 아이들
푼으로 매려가며 팽이 치는 아이들
팽이는 얼음관에서 잘도 돌니다.
누구 팽이가 잘 도나, 내 팽이가 잘 돌지.

가을 하늘

서울 방산 국민 학교 5년

김성천

가을 하늘 푸른 하늘
드높은 하늘

하늘에는 별들만
뽀짝거리고

조각달 남몰래
사르시 났네.



어린 별

수원 성호 국민 학교

김진원

우리들은
자는데

별은
안 잔다.

초롱불 켜 들고
지키고 있어,

만화책도 못 보는
가엾은 별아.



소나무

서울 공덕 국민 학교

엄문영

지난 밤에 내려온 서리 맞고서,
소나무가 하얗게 영감 났어요.

아침 햇님 들으니 뽀짝거리고,
썩던 머리 빠지고 되 젊어졌네.

뽑고 나서

박 영 중

여러분의 작품을 보아 온 것도, 벌써 때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따스한 맘"이 스민 노래만 뽑으려 애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요보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따스한 맘"을 가졌나, 그것만 보아온 셈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서 좋은 동요는 되지 않습니다. "따스한 맘"과 또한 가지 "날카로운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는 해는, 그 날카로운 느낌을 주의해 보아서, 뽑겠습니다.

★

"연"은

"얼레에 감긴 실 모두 풀어 주께"란 구절에, 김군의 따스한 맘이 나타나 있습니다.

"얼음판"은 쓸쓸한 작품입니다. 아무 꾸밈 없는 점이 좋았습니다.

"어린 별"은 첫 절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끝 절은 일부러 꾸민 소리 같았습니다.

"소나무"는 좀 평범합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아홉 살타기 작문과 동요 모집 기간이므로, 그 기간 안에 들어오는 작품은 모두 살타기 모집에 응모한 것으로 치겠습니다.

(편집부)

새 공 부

문제(5)의 해답

(12월치)

(1)의 문제

(1) 조상 (2) 항복 (3) 전쟁 (4) 망한다 (5) 작년 (6) 정용 (7) 안 (8) 불행 (9) 유채 (10) 존중 (11) 암컷 (12) 중일 (13) 서양 (14) 근검 (15) 인도, 또는 지도 (16) 대개, 대체 (17) 천문학 (18) 산뜻하다 (19) 지하(地下) (20) 자연 (21) 희망 (22) 풍부 (23) 원로 (24) 유명 (25) 장래 (26) 발달 (27) 천장 (28) 딱딱하다 (29) 비죽비죽 (30) 약하다 (31) 전부 (32) 임금 (33) 지리학 (34) 함문 (35) 무식 (36) 정신 (37) 우수 (38) 부지런히 (39) 요란하다 (40) 공손하다 (41) 답답하다 (42) 무집 (43) 석양 (44) 은은히 (45) 시내 (46) 슬픔 (47) 비판 (48) 전배 (49) 급제 (50) 식물 (51) 위협 (52) 도회지 (53) 초목 (54) 입학 (55) 불안 (56) 최후 (57) 유수 (58) 공장 (59) 고향 (60) 기름진 옥토 (61) 구중 (62) 조각인 (63) 의무(義務) (64) 급히 (65) 집들 (66) 불편 (67) 구두쇠 (68) 고아원 (69) 뚜렷하다 (70) 고상 (71) 해산 (72) 석가의 탄생 (73) 총명 (74) 영원 (75) 화려 (76) 쓸쓸히 (77) 결과 (78) 특별 (79) 교차 (80) 자유 (81) 존경 (82) 합금(合金) (83) 명령 (84) 전부 (85) 원리(原理) (86) 사환 (87) 평생 (88) 성취 (89) 안심 (90) 노력 (91) 애국자 (92) 조상 (93) 끝 (94) 서로 대답한다 (95) 강하다 (96) 일부 (一

部) (97)한가하다 (98)냉정 (99) 날이 저물다 (100) 상학

(2)의 문제

(1) 별안간 (2) 부르짖는다 (3) 대개 (4)종족 (5)슬프다 (6) 굴복 (7) 형세 (8) 전부 (9)급기야 (10) 폭탄 공격 (11) 전쟁을 알리다 (12) 쓸 데없이 (13)뽑아 쓰다 (14) 형편 (15) 어둡 어둡 (16) 흠족 (17) 잘다 (18) 행복되지 못함 (19) 처지 (20) 위로 (21) 점점 (22) 긴급 (23) 많이 (24) 토질 (25) 꼭 (26)걱정 (27) 인도 (28) 채 (29)목소리 (30)쫓 (31) 대강 (32) 먼지 (33) 어렵 (34) 더군다나 (35) 제일 (36)말하자면 (37) 혼자 (38)세어 (39) 멧멧이 (40)반드시 (41)많다 (42) 재료 (43) 오즈음 (44)설비 (45) 기초 (46) 계속 (47)다만 (48)기본 (49) 마침내 (50)의외 (51)어 뜻 (52) 배 (53)굉장한 (54)여러 가지 (55)숨쉴 (56)예쁘다 (57)나이 (58)슬기 (59)칭찬 (60)법도 (61)모두 (62) 매우 (63) 대단히 (64) 만약에 (65) 지경 (66) 덕택 (67)아르다 (68)강제로 (69)이상스럽다 (70)꼭 (71)아무쪼록 (72)당연하다 (73) 거뒀없이 (74)기이 (75) 계속하여 (76) 거무스런 (77)상의 (78)장소 (79)박수 (80) 바로 그때 (81)내려 (82)잃증나다 (83)위안 (84)차차 (85) 본떠서 (86)활발하게 (87)재주 (88)람 뜻 (89)이 세상 (90)거룩한 (91) 괴곤 (92)본집 (93)반대로 (94)영구 (95)공로 (96)추진 (97)지혜 (98)떠 (99)차레 (100) 간수



모오구리 (6)

기플링 지음
작은돌 번안

원숭이 떼와 결투

“우리들은 한 피를 타고난 거라다. 그때들과 나와는.”

시라코 모오구리는 뱀들이 쓰는 말로 급히 말했습니다. 시랑 모오구리의 주위에서는, 버섯버섯 하고 뱀들이 꿈틀거리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리는 것입니다. 모오구리는 자기가 수 많은 뱀 틈바구니에 끼운 것을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똑같은 암호말을 자분침 또 한 번 말 하였습니다.

“오, 그래? 여보게들 모두 머리를 그만 숙이게.”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그만 친구, 고대로 가만히 서 있으라우. 네 발에 우리가 밟았다간 큰일이니까.”

하고 다른 뱀이 말하였습니다.

인도의 페히 (허무어진 옛터) 의 지하실 같은 데는 어디고 고부라들이 우굴우굴 물켜 살고 있습니다. 고부라는 독사의 일종으로 대가리가 유난히 큰 뱀입니다.

모오구리는 이르는 말대로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표범과 원숭이들의 싸움하는 무시무시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으르렁대는 소리, 물어뜯는 소리, 악쓰는 소리, 팽개치는 소리. 그리고 바기라가 산머미처럼 달려오는 적을 상대로, 뒤로 물러났다, 앞으로 달려들고 물어뜯어 동맹이 될 때에 나는 그 처량한 소리— 그것은 모오구리가 처음 듣는 장렬한 싸움의 소리였습니다. 사실

바기라는 생전 처음으로 목숨을 내던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발루가 꼭 절에 있을 터인데... 바기라가 혼자 있을 리가 없는데...)

모오구리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크게 소리쳤습니다.

“열 곳으로 가아, 바기라! 열 곳으로 뛰어들어! 물 속으로!”

바기라는 싸우면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오구리가 살아 있고나 하는 것을 알자 그의 용기는 백 배 났던 것입니다. 표범은 곰부림을 치면서 곧장 열 곳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려 들었습니다.

이 때입니다. 정글에 가까운 성벽으로부터 곰 발루가 하늘이

아케라...통명늑대. 샬·칸...모오구리의 부모를 잡아 먹으려던 뱀. 타바귀...간사한 승냥이. 말투...모오구

꺼져라는 듯이 악을 쓰며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은 곰은 있는 힘을 다 하여 달려 왔으나, 이보다 빨리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기라! 내가 왔네. 어놈들 꿈쩍 말구 게 있저라. 우흥 우흥! 이거 발이 미끄러진다. 이놈들이 찢어죽일 놈들 내가 왔다!”

뺨은 미친 것처럼 날뛰면서 숨찬 소리르 악을 쓰며 곰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곰이 나타나자마자, 원숭이 떼들은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곰의 몸은 원숭이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펄쩍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앞발을 쭉 펴서는 한 마려씩 번쩍 들어서 규칙정연하게 평평 때라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똑딱선이 물 위를 평평 떠가는 그런 소리가 들렸읍니다.

평딩!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철적! 하고 돌이 튀는 소리로, 바기라가 물에 뛰어들 것을 모오구리는 짐작하였습니다. 거기까지 원숭이들은 쫓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포범은 가쁜 숨길로 허덕이면서 물 위에 떠 올랐습니다. 간신히 머티만을 물 밖에서 내어 놓고.

한 편, 원숭이들은 연못 가를 세 겹, 네 겹으로 에워싸고 약이 바짝 올라서 고래고래 소리치고 오르락 내리락 날뛰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발루가 바기라를 구하러 오는 때에는 사면에서 한꺼번에 덤벼들 기세입니다.

바기라는 물에 젖은 턱을 해가지고, 절망 속에서 마지막 힘을 내어 구령이를 부르는 암호 말을 외쳤읍니다.

“카이여, 그대는 사망 어디 있는가?”

바기라나 발루는 여태 오지 않는 카이를 잠간 의심하였읍니다. 형세가 이롭지 못하니까 착안하는 그만 내뺨 것이 아닌자 하고. 곰은 포범이 비통한 소리로 구령이를 찾는 소리를 듣자, 원숭이 때문에 숨도 제 대로 쥐지 못하면서도 정긋하고 웃음이 터

져 나왔읍니다.

(바기라가 아주 녹았다보다.) 카이는 대관절 어디를 갔단 말인가?

비로소 나타난 카이

카이는 이 때에 겨우 성벽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그는 몸을 한 번 비끄먼서 땅 위로 뛰어 내렸는데, 그 틈에 성의 돌이 떨어져 도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지세(地勢)를 이용하여 적에게 대할 셈으로 몸을 말았다 폄다 하면서 그 지나간 몸통이가 자습자대로 움직이나 앓나를 시험하였읍니다.

이러는 동안에도, 발루와 원숭이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읍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원숭이 떼들이 바기라를 에워싸고 연못 가에서 야단법석이었읍니다. 그리고 딱취 망은 이동



떡의 선생. 바기라...모오구리의 뒤를 보아주는 포범. 카이...구령이. 란...소리개. 하티...코끼리. 망...딱취,

모오구리

지금까지 이야기 줄거리

인도의 나무숲(정글) 속에서 늑대에게 걸려온 사람의 아들 모오구리는, 곰 발루에게 정글의 법률 풍속을 자세히 배웠다. 심심하게 날을 보내는 모오구리가 하루는 나무 위에서 지절대는 원숭이들과 같이 놀겠다고 하였더니, 표범 바기라와 발루는 깜짝 놀라며 말린다. 그런데 낮잠들을 자는 틈을 타서, 원숭이들은 모오구리를 꺼안고 나무 위로 달아났다. 모오구리는 마침 날아가는 소리개 탄에게, 제가 지금 볼들려 가는 곳을 보아 두었다가 발루와 바기라에게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곰이나 표범은 나무 위에서 사는 원숭이를 당할 수가 없으며, 다만 능구렁이 카아만을 원숭이들이 무서워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기라는 카아를 꼬이게 하고, 소리개 탄이 알으켜 준 곳을 향하여 전 속력으로 달려갔다. 원숭이의 소굴로! 그 때에 원숭이들은 모오구리를 데려온 기쁨에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있었다. 원숭이들의 소굴은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오래된 고풍스러웠다. 원숭이들과 있기에 싫증이 난 모오구리는 먼저 살던 정글로 돌아가고 싶었다. 마침내 원숭이 떼와 바기라, 카아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원숭이들은 고부라라는 독사가 우굴우굴 하는 합정속에 모오구리를 가둬 버렸다. 모오구리는 뱀에게 물려 죽느냐 사느냐.....

저곳을 날아다니며, 이 대 전쟁을 온 정글에 널리 전하여 알렸습니다. 마침내 하티라는 코끼리까지 나서서 긴 코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즉 먼 곳에 있던 만 원숭이 떼들이 자던 눈을 깨우고, 나무에서 나무로 가지들을 타고, 이 원숭이의 소굴로 동무들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근방은 그야말로 큰 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날짐승까지 펄뿔거리며 하늘을 튀뎀고 지절대는 것이었습니다.

카아는 끈장, 총알 같이 돌격해 들어갔습니다. 무릇 능구렁이의 싸우는 힘은, 그 온몸의 날센 속력과 무게를 대가리에 모더어서 그 대가리로 찌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독자 여러분이 창이나 총두께가 판장대기에 부딪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카아가 싸울 때에 대강 어떠한 위력을 가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댓 자 되는 구렁이조차도 겨냥만 잘 대면 사람의 가슴을 찢어 사람을 자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아라는 구렁이는 아시다싶이 삼십 척이 더 되는 큰 구렁이입니다. 그의 제 일격은 발루를 에워싼 원숭이들의 증심에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둥이를 날카롭게 하여 썩 하고 정통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이격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원숭이들이 그 순간 혼줄이 빠져서 거미새끼처럼 흩어지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카아다! 카아가 나왔다!”

“에그머니!”

“날 살려라! 도망가자!”

원숭이들은 대대로 그 아버지 미가 날도둑놈 카아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카아라는 구렁이는 나무가지 위를 이끼가 끼듯 스프르 미끄러져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놈은 제 아무리 힘세고 날센 원숭이 떼라도 훑쳐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카아는 제 몸둥이를 마치 마른 나무가지나, 썩은 밀둥처럼 남에게 보이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하다는 원숭이도 나무가지인 줄 알았다가 구렁이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들이 정글 속에서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카아였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카아가 얼마나 대체 어느 정도 힘이 센가를 원숭이는 한 마티도 짐작조차 못하는 때문입니다. 카아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원숭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아에게 볼들려 가서 살아 돌아온 원숭이는 한 마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들은 너무나 무서움에 온 몸을 사시나무 떨 듯하며 성벽과 처봉 위로 도망쳐 올라갔습니다.

그제서야 발루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털은 표범의 털보다 훨씬 두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번 싸움에 혼이 났습니다.



이 때에 카아는 처음으로 입을 벌리고 “셋 셋” 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온 원숭이들은 그만 몸서리를 쳤습니다. 원숭이들은 일체 입을 다물었습니다. 옛 고을러요, 원숭이의 소울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바기라는 연못에서 기어 올라와 부르르 떨면서 몸의 물을 털었습니다. 원숭이들은 으악 소리를 치며 또 한바탕 범벅을 하며 성벽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한 편, 모오구리는 지하실에서 좋아서 펄펄 뛰며 입으로 부엉이 흉내처럼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저 함정에서 사람의 아이를 끄집어내 주게. 나는 어떡할 수가 없으니.”

라고 바기라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 우리들은 사람의 아이를 데리고 가자. 놈들이 우리에게 다시 달려드는지 모르니.” 라고 하였습니다.

카아는 침착한 말씨로,

“응, 저놈들은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움직도 못할 거야. 그렇게 서둘러 건 없어.”

이 말이 끝나자 사방은 또다시 고요했습니다.

“나는 더 빨리 올라야 할 수가 없었다네. 그런데 난 자네가 날 부르는 걸 들은 것 같애.”

이것은 카아가 바기라를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응 난—난 싸우면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몰라.”

라고 바기라는 대답하고, 이번

에는 꿈을 보고 말했습니다.

“발루, 자넨 어디 다친 데나 없나?”

“나는 저놈들이 나를 때 갈래로 찢는 줄만 알았어. 이그 그, 히이...어보게 카아,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은 자네 덕일세, 바기라허구 이렇게 죽지 않은 것은.”

바기라는 발을 한 짝씩 내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별 소릴 다 허네. 큰데 그 사람의 아이는 어디 있다?”

“여기야, 여기. 함정 속야.

난 기어 올라 갈 수가 없어.” 하는 모오구리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아 어 너석을 끄집어내 주게. 이 너석이 새 새끼처럼 날뛰는 바람에 내 자식 새끼

들이 밟혀 죽겠네.”

여섯은 고부라들의 소리였을
터다.

카아는 걸걸 웃더니,

“그놈 참 명랑한 놈이로군.
야아 사람의 새끼야, 뒤로 물
러 섰거라. 그리구 너희들 독
사들도 비켜나거라. 이제 내
가 벽을 무너뜨릴 테니.”

하고 그는 그 날카로운 눈으로
모오구리가 들어있는 지하실의
담벼락을 가만히 노려 보았습니
다. 마침내 그는 대리석 담벼락
에 빛 바랜 돌 하나에 틈바구니
가 생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카아는 그 틈바구니에 주둥이
를 갖다대고 두세 번 툭툭 두드
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한 칸쯤
번쩍 위로 솟구치고서 마치 곡
괘이를 내리치는 듯한 기세로
틈바구니에 주둥이로 쿵 하고
내리쪼았습시다. 한 번, 두 번
…… 여섯 번을 내리치자 와르
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담벼락
이 무너졌습시다. 먼지와 흙이
쏟아지고 돌부스러기가 흩날렸
습시다. 오오, 모오구리는 그
무너진 담으로 손을 잡고 기어
올라와, 밖으로 나오자마자 발
루와 바기라 사이로 뛰어 들었
습시다. 두 팔로 두 짐승의 목

을 얼싸안으면서.

“다쳐지나 않았니?”

발루가 물었습니다. 모오구리
에게 제 뺨을 갖다대면서.

“난 은 몸이 아파 못 견디겠
어. 배가 고파 죽겠어. 아아
그놈들한테 혼이 났구면. 아
아 우리 형제들, 이것좀 보아.
피가 나잖나?”

“피는 우리만 났나? 저놈들
도 났지.”

바기라가 말했습니다. 헛바닥
으로 제 입을 핥으면서. 그리고
궁터와 연못가에 흩어진 원숭이
의 종장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어.

너만 무사했다면 아무 일이
없어.”

이번에는 발루가 말했습니다.

바기라는 모오구리더러 말했
습시다.

“자아, 여기 카아가 있다. 우
리들이 싸움에 이긴 것도, 네
가 목숨이 살아난 것도 다 카
아의 덕택이다. 우리들 풍속
대로 카아에게 고맙다고 인사
해라. 자아 모오구리야.”

모오구리는 그제서야 머리를
들어 엄청나게 큰 농구렁이의 머
리가 제 머리 한 자쯤 위에 흔
들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

다.

“오오, 이것이 사람의 새끼가
? 가축이 자못 부드러워 보
이는걸, 그리구 원숭이를 닮
지 않았나봐. 예 사람의 새끼
야, 조심해라. 내가 너를 원
숭이와 잘못 알았다간 큰 일
이니까. 더우기 땅꺼미지는
무렵에 내가 새웃으로 갈아
입었을 때말이다.”

라고 카아가 말하자, 모오구
리는 서슴지 않고 뱃구하였습니
다.

“우리들은 한 피를 타고난 거
예요. 그대와 나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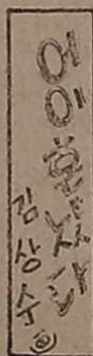
“응 그래?”

“오늘밤은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소. 언제든 당신이
사장했을 때에 난 당신에게
먹을 것을 바치리다.”

“고마운 말일제. 그런데 이
대담한 사냥군은 무엇을 죽
일수 있다는 것인가? 다음
네가 사냥질할 때에. 내가 대
셔도 좋다는 말인가?”

카아는 웃음을 참는 듯이 눈
을 깜짝깜짝 하면서 말했습니
다.

“나는 아무 것도 죽이지는 않
소. 난 아직 어리니까. 허지
만 나는 엄소를 사냥군 앓는



데로 돌아주는 물잇군은 되오. 배가 고프았을 때 나 있는데 와 보면 알 거요. 나는 이 두 팔을 교묘하게 쓸 수 있소.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뒷에 칠다면 나는 그 뒷에서 당신을 구해낼 수 있소. 바기라나 발루에게도 자랑할 건 이것 뿐이오. —우리 대장들 세 분이 다 너무나 고맙구려.”

“잘 했다.”

발루가 감탄해 말했습니다.

모오구리가 것처럼 치하의 말을 잘할 줄은 뜻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능구렁이는 머리를 잠깐 모오구리 어깨에 가볍게 얹었습니다.

“씩씩한 기상과 슬기로운 말 솜씨.”

이렇게 칭찬하고 나서 다시 모오구리에게 라일르 듯 말했습니다.

“그 기상과 그 말솜씨가 네 이름을 온 정글 안에 떨치게 하리라. 사람의 새끼여, 그러나 지방은 어서 급히 네 동무와 함께 저리로 가라. 가서 잠이 들어라. 달이 지려 한다. 이제로부터 일어나는 일은 네가 보아서는 좋지 못한 일이다.”

모오구리 돌아오다

달은 언덕 위로 숨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과 궁터 위에 웅성거리고 떨고 있는 원숭이들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바닷잎과 같이, 거렇게 비취고 있었습니다. 발루는 불을 먹으

려고 연못으로 내려 갔습니다. 바기라는 털을 기다듬고 있었읍니다. 이 때에 카아는 궁터 한 가운데로 스르르 내려 가더니만 짹짹 하고 크게 입맛을 다셨읍니다. 이 소리는 모든 원숭이들의 눈을 이 쪽으로 향하도록 한 것입니다.

“달이 진다. 아직도 보이는가?”

카아가 소리치자, 성벽 위에서 나무를 스치는 바람과 같이 가느다란 소리로,

“보입니다. 카아 선생.”

하고 원숭이의 두목이 대답하였읍니다.

“그래? 그러면 춤을 추워야지. 카아가 허가했을 때 추는 시창춤이다. 품짝 말고 푹푹히 들 봐 두어라.”

그는 두 세 번 크게 동구러미를 그리면서 땡땡 돌았읍니다. 머리를 바른 쪽에서 왼쪽으로 돌리면서 그리하여 그는 8자를 만드다

가, 다시 세모꼴도 만들더니, 나중엔 땡땡처럼 도차리어서 기다란 헛바닥을 하늘에 대고 늘름거렸읍니다. 이 동안 조금도 쉬지 않고 조금도 채치지 않았으며, 그리고 목으로는 어상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있었읍니다. 그러는 사이에 차츰 차츰 어두워졌읍니다. 그러자 드디어 구렁이의 모양은 보이지 않았읍니다. 다만 비늘이 삭삭하고 땅을 꺼슬리는 소리 만이 들렸읍니다.

발루와 바기라와는 돌처럼 서 있었읍니다. 모오구리도 가만히 서서 바라보았읍니다.

마침내 카아의 목소리가 들렸읍니다.

“원숭이들아, 너희들은 내 명

★ 칭찬이 자자한 글벗집 책들 ★

세계笑話 三冊	깔 깔 학 교	재 판 발 매 값 200원
재미있고 의견느는	수수께끼 책	재 판 발 매 값 120원
방 정환 소년소설	동생을 찾으려	그림정험응 값 180원
방 정환 소년소설	七七단의비밀	그림정험응 값 240원
소년과학 문답 집	왜 ?	150 문답 값 150원
윤 석 지	어린이독본	수학부독본 값 130원
성 공 이 들	소년시대	30분애기 인쇄 중

글벗집 총판매점★文章閣 (서울)
(충무로)

명 없이 네 다리를 움직일 수
였느냐? 말해라!”

“선생의 명령 없이 어찌 무슨
것인들 하겠습니까?”

“그럴 해지. 모두 한 말자국
씩 내 앞으로 가까이 오너타
!”

원숭이들은 물결치 듯 앞으로
흔들리었습니다. 이 바람에 발
루와 바기라도 원숭이에 섞여서
한 말자국을 내 던졌습니다.

“좀 더 가까이!”

하고 카아가 소리쳤습니다. 또
다시 원숭이들은 카아에게 대졌
습니다.

이 때입니다. 모오구리는 발
루와 바기라에게 손을 대고 뒤
로 잡아다리었습니다. 두 짐승
은 꿈에서 깨어난 듯 정신을 따
작 차리었습니다.

“네 손을 내 어깨에서 떼지
말아. 그렇잖으면 나도 카아
에게 흘려서 끌려 들어가겠
다.”

라고 바기라가 말했습니다.

“염려 말아요. 늙은 구렁이가
땅 위에서 꿈틀거렸거로.”

모오구리는 큰 짐승을 어린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자아, 가자.”

누가 말한지도 모르자, 그들
은 나란히 성력 무너진 틈으로
빠져 나와 정글 속으로 발걸음
을 옮기었습니다.

교묘한 나무 아래 셋이서 문
듯 섰을 때에 발루는 말했습니
다.

“이제 두 번 다시 카아에게
원조를 받지 않을 해다.”

그는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

었습니다.

“하망더면 우리들도 그놈의
목구멍으로 들어갈번 하였
지.”

바기라도 떨면서 말하였습니
다.

“그 지경으로 꺾면술을 써서
흘려 놓으면 달이 다시 뜰 때
까지 몇 마디나 삼킬까, 아파
수 없는 원숭이가 그 목구멍
으로 엉금엉금 겨어 들어갈
것일제.”

발루가 연방 뗏구를 합니다.

한참만에 모오구리가 말하였
습니다. 그는 능구렁이가, 그 이
상한 춤을 추어 남을 흘려 놓은
다음에 슬며시 삼켜버린다는 것
은 도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난 전혀 몰랐어. 난 큰 구렁
이가 어둠 속에서 제 몇 대로



꿈틀거리리는 줄만 알았어. 카아는 코를 톱서 다쳤드구먼.”
 “모오구리야, 카아는 너 때문에 코가 뺏겨진 거다. 내 귀 내 옆구리, 발, 그리고 발루의 턱과 모가지가 다 너 때문에 다친 것과 마찬가지로. 나와 발루는 언제 얼마 동안은 당 대로 사냥질도 못할 거야.”

바기라가 좀 화가 난 소리로 이렇게 말하자, 발루가 역성을 들어 말했습니다.

“그까짓 일은 다 지낸 일야. 우리들은 이 사람의 아이를 찾았으니, 할 일은 다 했어.”
 “전 그래. 그렇지만 이 애로 우리들은 얼마나 애를 헤웠는가 말야. 게다가 다치기까지 하구. 이것좀 보아. 내 털은 반은 없어졌어.

그러나 그런 것은 오히려 아무 것도 아냐. 가장 망칠 것은 우리들의 명예가 더럽혀진 거거든. 모오구리야, 네 듣거라. 점점 포범 내가 말이다. 카아에게 살려 달라 소리를 쳤단 말이다. 발루와 내가 모두 그놈의 시장춤에 홀려서 세 세끼처럼 녹초가 되었던 말이다. 이 모든 해괴하고 망칙한 일은 내가 원숭이테들과 섞여서 놀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바기라의 소리는 여전히 화를 품은 소리였습니다.

모오구리는 슬픈 목소리로 사과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의 새끼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줄 알면 괜찮아. 그

러나 발루, 정글의 법률은 어떻게?”

발루는 어 이상 모오구리를 괴롭혀 주고는 싶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법률선생인 발루가 법률을 무시할 수는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는 좀 더듬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분함은 그치질 않네. 허지만 바기라, 이 아이는 너무 어린 아이세.”

“그걸 나두 알어. 그러나 이야는 남에게 해를 끼쳤네. 그러니까 벌을 주지 않을 수 없어. 모오구리야, 너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없어요. 내가 모두 잘못된 걸. 발루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맞는 것이 당연해.”

그리하여 바기라는 모오구리에게 예를 여섯 개 때렸습니다. 포범으로 치면, 제단은 제 사랑스런 새끼더러 정신 차리라는 정도로 살짝살짝 때린 셈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겨우 열 살 밖에 안 된 사람의 아이에게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아픈 때였습니다.

바기라가 여섯을 다 때렸을 때, 모오구리는 처채기를 한 번 하코나서, 아무 말도 않고 부서서 일어났읍니다.

“자아, 내 등에 올라 타라. 우리 꼬마야. 우리들은 집으로 가자.”

바기라가 말했습니다.

정글의 법률이 좋은 것은, 벌이 끝난 뒤에는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러쿵 저러쿵 군소리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모오구리는 머리를 바깥라 잔 등이에 폭 파묻고 이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제 곁인 늑대 굴에 닿아서, 어미 늑대 곁에 누웠을 때까지도 눈을 뜰 줄 모르고 그냥 소룩소룩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전편 끝)

【번안한 이의 말】 모오구리의 이야기는 이결로는 절반도 다 못 됩니다. 모오구리는 다음에 커서, 전부터의 원수 사·칸이라는 호랑이를 죽이고, 또 사람의 부탁에 내려가고 하여서, 더욱 씩씩하고 슬기롭고 신기한 자질이 벌어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계속해 내자면 독자가 운미는 지루하게 기다릴 분도 있을까 하여 우선 이것으로 전편의 끝을 막읍니다. 그리고 이편에 후편까지 붙여서 한 권 책으로 꾸며서 지금까지 애독해 주신 독자와 새로 읽는 독자에게 한꺼번에 선사하기로 합니다.

4283년 1월 3일

작은돌 씬

★애독자 상타기 규정★

1등20명.....학용품 한벌씩

2등40명.....좋은책 한권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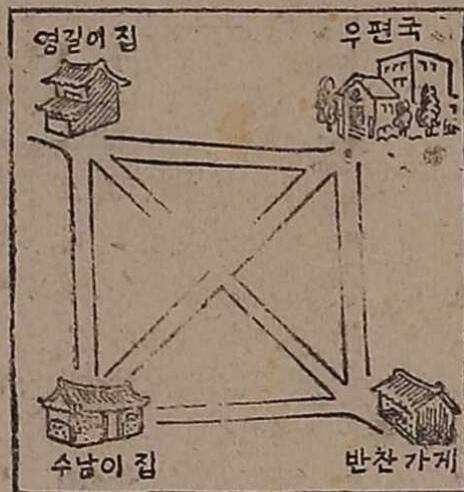
마감 2월 28일

발표 "소학생" 4월지

주의 다음에 있는 독자증을 반드시 오려서 답안에 붙여 보내십시오.

소학생 2월지 독자증

애독자 아합 상타기



새 문제

수남이는 어머니 곁 부름으로 반찬가게와, 우편국과, 영길이네 집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세 곳을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몇 종류나 되겠습니까?

★ 12월지 상타기 발표 ★

바른 대답과 뽑힌 분

(30 개)

1등 20명

김종인 (마산 회원교 6년)
김군협 (서울 혜화교 5년)
이정희 (강원도 녹선교 5년)
한경우 (서울 청운교 6년)
홍재기 (강화도 제일교 5년)
황환식 (천안 제일교 6년)
임등식 (김포군 신경교 6년)
김용웅 (목포 북교교 4년)
조용화 (서울 남정교 5년)
정운영 (서울 창신교 6년)
최차옥 (경북 영천교 6년)
김용수 (인천 송의교 6년)
안중만 (경기도 연백교 4년)
임승규 (서울 덕수교 5년)
진학범 (천안 성환교 5년)
유춘기 (서울 용강교 5년)
최동준 (서울 북성교 6년)
양길자 (서울 삼광교 6년)
김형식 (서울 사범교 5년)

최정환 (전주 중앙교 5년)

2등 40명

김영은 (서울 창경교 6년)
이근수 (서울 재동교 5년)
김창수 (서울 노랑진교 6년)
제철희 (서울 보성중학교 1년)
민완기 (서울 종로교 5년)
조용태 (마산 원월교 6년)
조병익 (목포 중앙교 5년)
박영순 (서울 효제교 5년)
이용인 (서울 이태원교 5년)
허판영 (마산 회원교 5년)
강 순 (전남 완도교 4년)
고은택 (서울 영회교 6년)
이용규 (서울 청계교 5년)
경기정 (개성 동현교 6년)
전순길 (대전 잠성교 5년)
손재익 (경북 군위 효령교 4년)
오도영 (강원도 원주교 5년)
서영희 (서울 중앙교 5년)
김선기 (서울 수송교 5년)
김성배 (충남 당진 합덕교 5년)
오귀일 (강화도 제일교 5년)
김진섭 (서울 동대문교 4년)
송용일 (강화도 힘일교 6년)
박종한 (서울 혜화교 5년)
김등혁 (서울 피동교 5년)
최신호 (경북 경산 중앙교 5년)
김인숙 (인천 청영교 6년)
김재철 (서울 돈 교 5년)
김용근 (서울 쌍림동 276)
임정무 (전남 목포 유달교 5년)
유연상 (서울 아현교 5년)
안병용 (서울 효창교 4년)
정충환 (전주 완산교 5년)
강석연 (서울 공덕교 6년)
조영숙 (대구 남산교 5년)
임종욱 (서울 종로교 5년)
김일수 (서울 상경교 6년)
변영림 (서울 덕수교 6년)
송기식 (서울 용강교 5년)
이광복 (서울 이태원교 5년)

도술법사 기이한



○ 군고구마

선생님 “길 가에서 군고구마를 사 먹고 있는 것이 너희들 눈

에는 어떻게 보이더냐.”
 생도 “사 먹는 것이 좋게 보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런 말이 있다. 길 가에서 사 먹는 것은 나쁜 것이야.”
 생도 “그렇지만 저의 아버지가 군고구마 장사를 하는데 어떡해요.” (서울 마포교 배기성)

○ 역사시간

선생님 “단종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수남이.”
 한눈 팔고 있던 수남이는 벌떡 일어서더니,
 수남이 “예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 (서울 정제교 유준학)

소학생의 귀향기

민선 내사

▲ “소학생” 12월치를 보고 나니, 우수한 말요의 “통노래” “방구타령” 같은 것은 우습고 재미 있어서 단박에 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별들” 에 왜 그렇게 화약이 공교롭게 터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소학생”에는 작문은 내지 않는데, 왜 안 내는지 아시켜 주세요. 또 작문을 지어 보내도 좋습니까? 속히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소학생” 편집실의 여러 선생님 몸 건강히 안녕히 제십시오.

(서울 매동교 오 원섭)

△ 여러분의 우수한 작문을 “소학생” 편집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 풍연 선생님께서 심사 하시기 되었으니 많이 훌륭한 작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자)

▲ 이 추운 겨울날 여러 선생님들 감기 드시면 내동무 “소학생” 을 못 만드시게! 부디 몸 조심하시어 “소학생” 잘 살리십시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애독자 아협 상타기 (9월호) 에 뽑혀서 11월호에 발표(2등) 되었는대 상품이 12월 25일이 되기 까지 오지 않으니 웬 일일까요?

(서울 안산교 박 영규)

△ 11월 23일에 학교 주소로 보내 드리었습니다. 등기로 보냈

으니 틀림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선생님께 한번 여쭙 보세요. 이쪽에서도 우편국과 연락을 하겠습니다. (기자)

▲ 벌써 그 추운던 겨울이 다 지나 가고 따뜻한 봄은 왔습니다. 여러 선생님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지요? 또 어린이를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시고 계십니까. 부디 아무 일 없이 어린이를 위하여 힘써 주십시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 인사 말씀은 끝이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안 실게 될 때에는 어떤 점이 나쁘고 어떤 점이 좋다는 것을 미안하지만 좀 써서 학교로 보내 주십시오.

(서울 효제교 김 찬영)

△ 그렇게 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워낙 수요가 많고 해서 평을 못해드리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 기자 선생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저는 64호부터 애독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나 소학생을 사놓고 읽으면 언니와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하라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재미있다고 기뻐하십니다. 기자 선생님, 그럼 안녕히. (인천 신종교 서 공주)

▲ “소학생”은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재미 나는 책입니다. 많이 애독하여 주십시오. (기자)

☆ 우리 “소학생”은 이 달 11일로서 배 들을 마지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치면 한참 재롱은 피우기 시작할 나이가 된 셈이지요. 그 짧지 않은 다섯해 동안 “소학생”과 같이 늘고 같이 웃고 하여온 나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큼니다. 그리고 “소학생”을 이 만큼이나 키워 주실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 아협에서는 다섯번째로 소학생 여러분의 “작문과 등요”를 모집하기로 되었습니다. 모집 규정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작품을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사이 모든 물건 값이 나날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그 중에도 종이 값은 놀랄만큼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잡지들과 의논이 되어 우리 “소학생”도 이달치 부터 150원으로 값을 올리게 되었으니, 독자 여러분은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김 일서)

4233年 2月 1日發行
소 학생 · 값 150 원
2월 치*제 75 호
 總發行人 尹 石 重
 田 副 人 金 關 斌
 發行所 兒 協
 4230年 9月 30日 總發 第248番
 서울 鍾路 2街 82 永探 號
 總販賣 乙酉文化社
 서울 鍾路 2街 82
 振替 서울 2706
 電話 0328 發行部
 03970 編輯部
 03492 廣告部
 0187 印刷部

서울신문社 印刷局
 4233年 2月 31日 發行 第148號

★ 아담손 · 할아버지 ★

쿠우폰포를 드립니다

소학생 잡지를 늘 애독하고, 또 등우들에게 권고하는 분이 많아서, 이 분들에게 보답하고자, 우리 아협에서는 “애독자 위한 쿠우폰 포”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쿠우폰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행운포인데, 소학생을 다달이 본다든지, 또는 독자를 많이 권유하는 사람은 힘 안들이고 상품을 타는 것입니다. 아래에 적힌 규정을 보십시오.

- 1 소학생 한 권에 쿠우폰 포 한 장씩을 꼭꼭 붙여 드립니다.
- 2 이 쿠우폰 포 12장을 4283년 12월까지 모으면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혼자서 한 장씩 모아도 되고, 남의 포를 얻어서 모아도 됩니다.
- 4 또 여러 독자들이 얼어서 보내도 됩니다. 어쨌든 12점을 한 묶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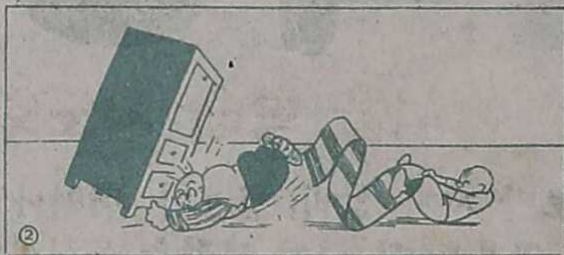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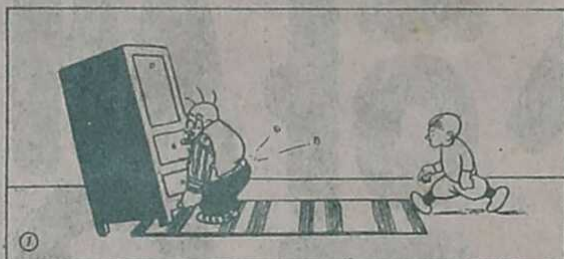
상 품

- 1 쿠우폰 한 묶음에 대하여 빠짐 없이 소학생 쿠우폰 상을 드립니다.
- 2 다시 여기서 추첨하여 1등부터 6등까지 쿠우폰 특별상을 드립니다.
- 3 상품 내용은 지금 연구중인데 다음 달치에 발표합니다.

주 의

12장이 모였더라도 곧 보내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금년 12월에 보내십시오. 미리 보내면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달치 쿠우폰 포는 본문 41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이 되도록 잘 모아두십시오.



☆아 협☆

“소 학생” 편집부

저절로 공부가 잘되는

소학생 연습장

서울 학습 지도회 엮음 * 아협 발행

남보다 지지 않게, 남보다 뛰어나게, 부끄럽히, 차근차근, 고생 않고, 실수 없이, 공부를 잘 하여 성적을 올립시다! 다 같이 우등생이 됩시다! 학급을 빛내고, 학교를 빛내고, 민족을 빛냅시다!

이 연습장이 바로 여기 필요한 책입니다!

학년 별 제 2 학기치 총연습 ☆발매중☆

입학
준비

50회 완성

중학교 입학이 막도한 여러분! 이 책은 시작하여 50일이면 모든 학과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가 되는 책입니다. 더도 말고 하루 한 번씩만 충실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놓고 윗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합시다.

중학교
들기 위한 **소년상식** 3,000문답집

이 책을 아직 못 가진 분이 계십니까? 또 다 팔리기 전에 어서 구하십시오.

글벗집 엮음★수정 제3판 발매중★값은 500원

아협 발행 · 文章閣 發賣 (전국 서점마다 팔고 있습니다)